

행당 윤복과 서술시의 미학

최한선*

<차 례>

1. 들어가는 말
2. 연구방법
3. 행당 윤복의 생평
4. 연구 의의
5. 행당 서술시의 미학 세계
6. 논의 및 결론

<국문초록>

본고는 행당 윤복(1512-1577)과 그의 서술시에 대한 미학을 살펴보고자 마련되었다. 행당은 영남학을 호남에 직접 전수한 금남 최부의 제자인 윤효정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형으로부터 가학을 이어받았다. 27세에 벼슬에 나아가 내외직의 여러 벼슬을 하였으며 특히 안동부사 시절에 퇴계와의 인연으로 본인은 물론 그의 세 아들과 생질, 생질의 처남 등이 퇴계학을 접하여 호남학을 풍요롭게 하는데 기여했다.

행당은 20편의 부문학을 창작했는데 이는 호남 서술시의 전통을 계승한 것이면서 아울러 생질인 풍암 문위세와 윤씨 집안의 외손인 다산 정약용 등 후손에게 서술시의 전통을 이어가게 했는데, 이는 강진 시사詩史는 물론 호남 한시단에서 중요한 시사적詩史的 의의를 지닌다 하겠다. 그의 서술시는 역사의 전범과 교훈, 종경宗經 정신 함양의 지향, 성선과 의리 중시, 귀거래와 내성 지향, 군자도와 수신 지향 등의 세계로 실현되었는데 그는 ㉠무엇을 원한다면, ㉡ 무엇을 해야 할 것이다, ㉢ 누가 무엇을 할 때, ㉣ 무엇을 하였으니,

* 전남도립대학교

㊸무엇 할지라도, ㊸무엇해야 한다는 식의 비교적 긴 호흡의 연장체 서술을 통하여 담담하게 자신의 주장을 펼쳐 보이고 있음이 주목된다. 또한 글을 밀고 나아가는 힘이 잔잔하면서도 유려하여 읽는 이의 호흡을 사로잡는다. ㉠지르고, ㉡풀며, ㉢펼쳐서, ㉣맺는 문장력은 행당 글쓰기의 또 다른 방식이었다.

끝으로 행당 시의 서정성을 들지 않을 수 없겠다. 행당 시의 서정성은 고려 때부터 강진의 백련사 등지를 중심으로 활발히 창작되었던 선시禪詩와 관련된 전통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거니와, 이는 뒤 세대인 해암 김응정, 청련 이 후백, 한벽당 광기수, 죽록 윤효관, 아암 혜장, 경회 김영근 등으로 계승, 발전되다가 근·현대 시문학에서 영랑과 현구 등이 거둔 남도의 토속적 서정성을 낳게 한 것과 유관한 것으로 사료된다. 행당 시의 서정성은 호남의 다른 서술시인과는 비교되는 점이 있음도 주목된다. 부 문학이 서술을 주된 문체로 전개되는 서술시라 할지라도, 그 것이 결국 서정 갈래임을 감안할 때, 이는 함축적 또는 내포적 서정시라기 보다는, 풀이적 또는 서술적 서정시의 미학임을 높이 사야할 것으로 사료된다.

핵심어 : 윤복, 부, 글쓰기, 서정성, 서술시 미학, 호남학

1. 들어가는 말

필자는 전남 담양군 남면에 소재한 식영정息影亭을 중심으로 면양정 송순, 송강 정철, 인재 김성원, 제봉 고경명 등과 함께 식영정 시단을 주도했던 석천石川 임억령林億齡(1496-1568)의 한시 3,000여 수에 대한 번역을 시작으로 호남 한문학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공부하는 과정에서 재미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15-16세기 호남 한

시단이 보여준 글쓰기 방식, 곧 서술시 제작과 그 것의 면면한 흐름이었다. 이렇듯 호남 한시사를 말함에 있어서 서술시는 하나의 전통이자 특징 중의 하나였다.

눌재訥齋 박상朴祥(1474-1530)은 호남 한시사에서 서술시를 개척한 시인이다. 그가 부賦를 통하여 애용한 서술시는 신재新齋 최산두崔山斗(1483-1536), 석천 임억령, 송재松齋 나세찬羅世纘(1498-1551), 미암眉岩 유희춘柳希春(1513-1577), 하서河西 김인후金麟厚(1510-1560), 행당杏堂 윤복尹復(1512-1577), 송천松川 양응정梁應鼎(1519-1581), 풍암楓菴 문위세文緯世(1534-1600),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1762-1836)¹⁾ 등 당대 주목받았던 일군의 문인들에게 이어져 모두 자기의 중요한 주장이나 신념, 건의 및 모순된 현실 정치에 대한 불만토로, 개혁 의지 등을 담거나 풍자하는 등의 글쓰기 수단으로 하나의 전통이 되었다. 그러한 서술시는 부賦라는 전통 한시 문체를 통하여 실현되었다.

이와는 달리 송강松江 정철鄭澈(1536-1593), 면양정俛仰亭 宋純(1493-1583), 사암思菴 박순朴淳(1523-1589), 고봉高峰 기대승奇大升(1527-1572) 등의 문집에서는 부賦를 찾아보기 힘들거나 있다손 치더라도 크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는 등 좋은 대조를 보이고 있음은 흥미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앞서 보인 15-6세기 부문학 창작자들은 기묘사화(1519) 또는 을사사화(1545) 등의 영향으로 관직 생활에서 물러나 주로 재야자로서 생활한 기간이 길었거나, 관직에 몸담았을 땐 주로 언간言諫직에 재직하면서 충간忠諫이나 직언直言 등을 거리낌 없이 하였거나 글쓰기에 종사하였다는 공통점을 지닌다.²⁾

1) 필자는 다산의 <소경에게 시집간 여자> 곧 <도강고가부사>는 임형택의 주장과는 조금 달리 장편의 서술 한시로서 호남 서술시의 전통을 계승한 것으로 보고자 한다. 임형택, 『이조시대 서사시』2, 창작과 비평사, 2013

2) 행당은 사간원 같은 직접적인 언간직은 아닐지라도 27세 문과 급제 이후 성균관, 예문관, 교서관, 승문원 등에 몸담아 글쓰기와 관련된 일을 9년여 이상 맡아 보았다. 행당선생추모회, 『행당선생유고』, 대보사, 1997, 연보

반면 후자들은 주로 재조자在朝者로서의 기간이 길었거나 비교적 순탄한 환로를 걸었던 경우 또는 도학자로서 표表, 답答, 설說, 서書, 논論 등의 문체를 통하여 자기의 주장을 논리적이며 학문적으로 주장했다는 등의 공통점을 보인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15-16세기 사화士禍의 영향 또는 정치적 신념 등으로 인하여 정치현실에서 소외되었거나, 스스로를 격리시킨 일군의 호남사림들이 경국제민에의 뜻을 이루지 못했거나, 그릇되고 불합리한 현실적 모순을 고발 또는 풍자하기 위하여 애용했던 글쓰기 양식은 다름 아닌 부문학 이었음을 알 수 있겠다. 그들은 주로 수사修辭 보다는 내용에 치중하는 송나라 문부文賦의 성격을 지닌 부문학을 창작했다.

글의 내용은 ①유학 경전의 내용을 차용한 것, ②성리서와 관련된 내용을 차용한 것, ③고사를 원용한 것, ④목도이문目睹耳聞한 실례를 든 경우, ⑤역사적 사실의 원용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아무래도 그 창작 배경이 자신의 의지 또는 신념이 현실적 상황과 괴리된 상태에서 지어진 까닭으로, 어떤 원칙이나 전범의 제시로써 역사적 사실이나 유교 경전, 제자백가서의 내용을 차용한 것이 주를 이루고 있다.

곧 중앙정계로부터 소외되거나 스스로 물러난 일군의 호남선비들은 주로 재야에 처했던 일신상의 조건상 당대 비판적인 의식과 함께 개혁의지 및 지치至治와 왕도정치的主張을 펴 보이려는 매체로써 글쓰기를 선택하였는바, 그 양식은 곧 부문학 이었으며, 제목으로는 주로 경전의 내용이나 제자백가서의 내용을 차용하여 삼았다고 판단했다.³⁾ 다만 행당의 경우 호남 서술시인과는 다른 환로를 걸었지만, 부문학 제작을 통해 서술시인의 대열에 참여하여 그만의 독특한 미학을 실현해 보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시발이 되었다.

필자는 이처럼 양적, 질적인 면에서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호남한시단의 부문학을 온당하게 이해하는데 관심을 갖고 있는바, 이 자리에

3) 행당의 경우. 여말 선초의 도은 이숭인의 <배열부전>을 차운한 경우도 있음.

서는 행당杏堂 윤복尹復(1512-1577)의 경우를 들어 논의를 전개하기로 한다.

2. 연구방법

필자는 부문학의 온당한 이해를 위하여 일련의 생각을 발표한 적이 있다. <송천 장편시의 세계>⁴⁾에서는 송천 양응정의 부문학을 장편시로 이해한 경우이다. 여기에서는 5언 또는 7언 고시체의 장형시까지 아우르는 개념으로 ‘장편시’라는 용어를 썼는데 장편이라는 용어가 길이의 모호성 등 문체의 이름으로 부적합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런 생각은 먼저 발표한 「송재 나세찬의 부문학 세계」⁵⁾에서 원래의 문체 이름 그대로 ‘부’라고 불렀던 것에 대한 필자 나름의 불만 때문이었다.

하지만 담론으로서의 일정한 가치를 지닌, 특정시기, 일군의 뛰어난, 그러면서도 정치의 중심세력에서 소외되거나 스스로 소외시킨, 울곧은 선비들에 의하여, 오랜 동안, 하나의 전통처럼 지속된 글쓰기 양식을 이해함에 있어서는 무언가 아쉬움을 떨칠 수가 없었다. 이에 ‘부’문학에 대한 생각을 계속한 결과, ‘부’는 일정한 담론을 지니며 그 기저 자질로서 “서술”이 주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찾아내었다. 그리하여 장편시 또는 부문학이라는 명칭 보다는 ‘서술시’로서 이해함이 보다 온당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이후 <풍암 서술시의 이해론적 전제와 미학>⁶⁾에서는 문위세의 부문학을 서술시적 관점으로 이해한바 있다.

서술시⁷⁾에서의 서술은 그 자체 서사자가 있어서 피서사자에게 이야기를 전달하는 소통의 방식이다. 호남 한시단의 부문학 대부분은 자신들이

4) 한국고시가문학회, 「고시가 연구」, 제6집, 1999.

5) 우리말글학회, 『우리말글』, 제8집, 1999.

6) 한국고시가문학회, 「고시가연구」, 제11집, 2003.

7) 서술시에 대한 여러 주장 및 논의는 위의 필자 논문들을 참조 바람.

열망했던 경국제민의 정치 철학을 실천에 옮기지 못하게 좌절시킨 대상 또는 그런 정치가 실현되지 못한 현실적 모순을, 드러내어, 지적하고, 개혁하거나, 시정하려는 의지를 담아낸 것, 정의와 윤리의 기강이 무너진 불합리한 현실을 들춰내고, 꼬집어서, 시정을 촉구하거나 풍자한 것, 소강신민小康新民의 종경宗經 지향정신 등을 담은 것이 많기 때문에 그 담론의 기저는 서술이 주를 이룰 수밖에 없다.

서술은 그 자체 서사자가 있어서 피서사자에게 이야기를 전달하는 소통의 모델임은 앞서 말한 바와 같다. 그러므로 보여주기 보다는 말하기의 화법을 주로 쓰며, 작품세계에 대한 시인 자신의 직접적 개입이 이루어지는 글쓰기의 한 양식이다. 이러한 서술은 사건을 시간적 연속과 인과성에 따라 결합시켜주는 조직의 기법으로서, 서사 갈래의 지배소로 간주되어 왔다. 긴 서사체의 경우 특히 시간의 흐름 감각이 생명일 수밖에 없으며, 그로써 세계의 추이를 드러내 보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서술이 차지하는 몫은 지대한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서정시에서도 시인이 시적 효과를 획득하기 위하여 사건을 도입할 수 있는 바, 그 경우 비록 긴밀하게 완성된 구성력을 갖추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그 플롯은 서술에 의해서 엮어집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로써 볼 때 서술은 서사 갈래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극 갈래이나 교술 갈래도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하겠는데 이는 서술이야말로 곧 모든 시의 기저자질 중의 하나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

한편, 서술이 주가 되는 시를 서술시라고 하거니와, 이는 묘사가 주를 이룰 때 묘사시라고 부르는 것과 같다. 어느 시대이든 거기에는 당대 사람들이 지니는 삶의 조건과 삶의 과정이 있기 마련인데, 그러한 조건과 과정은 서술되어야 분명해지므로 그것을 표현하는 수단으로써 서술시가 요구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귀결이다. 이는 달리 말하여 서술이란 어떤 소재에 대하여 취하는 관심의 가장 명백한 형식이라는 점에서 볼 때 매우 타당하게 여겨진다.

서술시의 문체는 수사적 비유보다는 일상인의 평이하고 단순한 담화체

가 우세한 반면, 이미지는 다소 약화되기 십상이다. 이는 서술시의 언어가 지시적 기능이 우세하여 명료도를 지님과 함께, 충실한 진실 전달 또는 피력이라는 점에서 객관적 발화로서의 강력한 힘을 지니게 된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또한 서술시는 삶의 조건과 과정이 서술되는 것이므로 어느 시대이나 그 현실 사정에 따라 자연스러운 진실 표현의 욕구충동 결과로써 어떤 이야기를 갖기 마련이므로, 거기에는 사건의 주체가 되는 인물이 있으며 그 인물이 사건을 벌이는 배경이 등장함은 당연하다. 그런데 사건의 내용, 인물의 특징과 성격, 배경 등은 문학 담당층이 변할 때마다 그들의 수요와 필요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서술이 요구되는 시의 기저자질로서의 서술은, 서정 혹은 서사로의 갈래 분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마땅하다. 이상과 같은 서술과 서술시의 개념을 고려하면서 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시경」의 시적 진술이나 일반 문학적 진술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진술은 다름 아닌 부賦라는 말처럼 부賦는 작시作詩 원리로서 텍스트의 생산에 기여해왔다. 비유 없이 직접적 서술로 이루어지는 부는 사고를 구조화하는 단위 또는 사고의 표현단위 및 사물이나 현상을 이해·해석·감지·파악하는 데 매우 유용한 양식으로 알려져 있거니와, 그와 관련한 대표적인 몇 견해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賦直而興微比顯而興隱⁸⁾

詩有六義其二曰賦賦者鋪也鋪采摛文體物寫志也⁹⁾

賦者敷陳其事而直言之者也¹⁰⁾

作賦之法已盡長卿數語大抵須包蓄千古之材

牢籠宇宙之態其變幻之極如滄溟開晦絢爛之至

如雲錦照灼然後徐而約之使指有所在

8) 孔穎達, <詩大序疏>, 『毛詩正義』(권 일)

9) 劉勰, <詮賦>, 『文心雕龍』

10) 朱熹, <葛覃>, 『詩經』

若汗慢縱橫無首無尾了不知結束之妙(중략)
賦家不患無意患在無蓄不患無蓄患在無以運之¹¹⁾

위에서 보듯 부는 직直, 포鋪, 부진數陳 등의 개념으로써 이야기를 곧바로 드러내어 말하거나, 펼쳐서 서술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부의 제작은 천고지재千古之材를 머금어서 변환지극變幻之極과 현란지지絢爛之至를 이루되 서이약지徐而約之하여서 사지유소재使指有所在하여야 하는데, 이때 무의無意함을 근심할 것이 아니라, 무축無畜함을 근심하고, 무축함을 근심할 것이 아니라, 무이운지無以運를 근심하라고 했다.

이렇게 볼 때 결국 부는 가슴에 맺히고 쌓인 것을 서술로써 적절하게 풀어내는 데 유용한 양식임을 알 수 있겠다. 다시 말하여 흥興의 돈오적頓悟的 자각과 대비되는 점오적漸悟的 인식認識이 바로 부賦라는 말이며, 이는 서술이 바탕이 되어 원인-결과, 전체-결론, 추정-단언 등을 통하여 사지유소재使指有所在를 적절하게 주장, 전개하는 경향이 강한 문학이라 하겠다.

3. 행당 윤복의 생평

윤복尹復(1512-1577)의 자字는 원례元禮, 호號는 석문石門 또는 행당杏堂이며 본관은 해남海南이다. 1512년(중종 7) 5월 12일 해남현 동문海南縣 東門 밖의 집(현재의 해남군 해남읍 해리)에서 어초은 윤효정(尹孝貞, 1476-1543)의 넷째 아들로 출생했다. 7세 때에 큰 형인 귤정 橘亭 윤구尹衢(1495-1549)에게서 배운 이래 15세 무렵에는 유학의 경전과 백가의 제서에 통달하였다. 1533년 22세 때 남원윤씨(1516-1551, 생원 純洵의 딸)에게 장가들었다.

11) 王世貞·徐師曾, 『文體明辯』

1534년 윤 2월 생원시에 이등二等 제일인第一人으로 입격入格하고, 27세 때인 1538년 9월에 별시別試 문과文科에 을과乙科 제일인第一人으로 급제하여 벼슬길에 올라 성균관 학유學諭, 학록學錄, 학정學正, 박사博士 등을 지냈다. 32세 때인 1543년 2월 6일 외간상外艱喪을 당하자 주자가례에 따라 정성을 다해 3년복을 마쳐 주위의 칭송을 듣더니 1546년에 성균관 전적(典籍, 정6품)이 되었다.

이듬해인 1547년 8월 5일 모친을 위해 외직을 원하여 승의랑承議郎으로 부안현감에 제수된다. 그때 마침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굶주려 죽어가자 밤낮으로 전력을 다해 구휼하는 등 애민정신을 보였다. 하루는 막강한 세도를 지닌 정승 이기李芑가 관청에서 쓸 배를 자기에게 주라고 편지를 보내어 요구했는데, 여러 사람들은 그의 권력을 두려워해 청탁에 따르고자 하였으나 윤복만 홀로 의연히 거절하였다. 당시 사관들이 그 강직함을 흠모하여 「명종실록」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는데 이를 통하여 그의 올곧은 성품의 일면을 잘 알 수 있다.

윤복은 성품이 정직하고 절개가 굳었다. 일찍이 부안현감扶安縣監이 되어 관청에서 쓸 큰 배를 제조한 적이 있었다. 이기李芑가 그 소문을 듣고 세 번 편지를 보내서 자기에게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끝내 들어주지 않았다. 당시 이기의 권력이 막강해서 만약 자기를 받들지 않는 자가 있으면 큰 화를 입혔다. 윤복과 가까이 지내던 사람이 그를 위하여 충고하여 주었으나 윤복은 ‘죽고 사는 것과 곤궁하고 영달하는 것이 모두 하늘에 달려 있는 것이니, 이기가 나에게 어찌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판서 송세형宋世珩이 윤복에게 사사로이 부탁한 일이 있었는데 윤복은 답서를 보내 책망하기를, ‘사군자士君子가 재상이 되었으면 마땅히 밝고 깨끗한 마음을 가져야지, 이처럼 구차하게 해서는 안 된다’ 하니, 송세형이 부끄러워하면서 사과하였다. 윤복은 평생에 문학文學을 매우 좋아했고, 남과의 교류를 일삼지 않았다.¹²⁾

1549년 정월 22일 내간상內艱喪을 당하였고 1551년 내간의 상을 벗었

12) 「명종실록」, 15년(1560)

다. 3월 15일에 봉직랑(奉直郎, 종6품)에 올라 예조좌랑 겸 춘추관 기사관禮曹佐郎 兼 春秋館記事官이 되었다. 6월 16일에 통선랑(通善郎, 정5품) 예조정랑이 되었는데, 이때 사인 윤부尹釜, 검상 송찬宋贊이 평소 친하게 지내던 의기醫妓가 벌 받는 것을 보고 패초랑청牌招郎廳이 장차 입정立庭하여 만류코자 패牌를 촉급하게 발하였으나 5-6번에 이르러서야 부득이 멈추고 부府로 가면서 비리를 꾸짖고 바로 나가 돌아보지 않으니 나이든 관리들이 탄복하였다 한다.¹³⁾

1551년 7월 13일에는 전라도사全羅都 兼 춘추관春秋館 기주관記注官이 되었는데 당시 관찰사인 삼가정三可亭 박수량朴遂良이 매번 큰일을 결정함에 공과 상의하여 처리하는 등 그를 매우 중히 여겼다. 전라도사로 있을 때에는 일록인 <전라도 도사시일록全羅道 都事時日錄>을 남기기도 했는데, 이는 8월 6일 대궐에 나아가 배사拜謝를 한 이래 10월 19일까지 73일간의 일기이다.

1553년 9월 19일에는 낙안군수에 임명되었는데 1555년 여름 왜구가 변방의 성을 연하여 함몰시킴에도 열읍의 수령들이 적절한 조치를 못하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 그는 성을 지키고자 분연히 일어나 성을 다듬고 호령하여 질서 있게 대처하니 당시 방어사 남치근南致勤이 여러 읍을 순행巡行하다가 이곳에 이르러 말하기를 ‘옛날의 명장도 능히 이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며 칭찬을 그치지 않았다고 한다.

1556년 병으로 사임하였다가 1560년 4월 23일에 통정대부에 올라 행한산군수 兼 춘추관 편수관이 되고, 1562년 광주光州목사가 되었는데 다시 병으로 사임하였다. 1564년 53세 때 종부시 첨정이 되었고 1565년(명종 20) 6월 15일에는 안동대도호부사에 제수되었다.

안동도호부사 시절에 퇴계 이황(1501-1570)선생이 관직에서 물러나 도산陶山에 머물러 있음을 듣고, 틈을 타 찾아가 때때로 안부를 묻었고, 경의經義 가운데 난구難句를 논하였으며, 시사時事를 변석辨析하는 등 선

13) 앞의 「행당선생유고」, 516-517쪽.

생과 함께 하느라 저물어도 돌아갈 것을 잊었다고 한다.¹⁴⁾ 뿐만 아니라 서로 헤어져서는 서신을 통하여 성리性理에 대해 논하기도 하였는데 퇴계 이황이 행당 윤복에게 보낸 서신은 27장이나 전한다. 이 서신은 「퇴계선생문집(退溪先生文集)」 원집에는 2편만이 등재되었는데 1869년에 <도산전서>(퇴계선생전서)가 간행되면서 원집에 실린 2편을 포함하여 26편이 모두 실렸다.¹⁵⁾

「퇴계선생전서」에 실린 26편 가운데 연기年紀가 있는 것은 을축(2건), 정묘, 무진의 4건인데 이들은 각각 1565년(명종 20), 1567년, 1568년에 해당한다. 윤복이 안동부사에 재임한 것은 1565년 6월부터 1567년의 병으로 사임하기까지 2년 4개월 인데 이 시기에 교류했음을 알 수 있다. 김언중은 퇴계학이 호남과 전국으로 확산된 것은 행당이 초석을 다진 것이라 했을 만큼 두 사람의 관계는 중요했다고 평가했다.¹⁶⁾ 행당은 안동부사를 사임하고 집으로 돌아 간 뒤에도 퇴계 문하에서 배우고 있던 강중, 흠중, 단중 등 세 아들을 통해 서찰을 주고받았음을 알 수 있다.

이 서신들은 ‘윤안동에게 답함[答尹安東]’(20건) 또는 ‘윤안동에게 드림[與尹安東]’이라고 되어 있어 대부분이 행당 윤복이 퇴계 이황에게 보낸 서신에 회답을 하는 형식으로 되어있다. 이로 미루어 행당 윤복이 퇴계 이황에게 보낸 서신도 있을 것이나 행당의 문집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서찰의 내용을 보면 안부를 묻고 선물(굴, 山雞, 육물, 송이버섯, 簡紙, 과실)을 보내온 것에 대한 사례의 글, 친척의 청탁에 관한 것도 있다. 그런데 주목을 요한 것은 책자의 발간에 따른 내용의 토론이나 국상國喪 시의 의례에 대한 논의도 깊게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점이다. 특히 문정왕후 국상 시의 행당의 의견에 대하여 자세한 해설을 보내고 있으며, 퇴계가 제유諸儒의 역학계몽易學啓蒙을 변석辨釋한 저서인 「계몽전의啓蒙傳疑」의

14) 앞의 유고, 520쪽.

15) 앞의 유고, 423쪽-466쪽, 1565-1568의 3년간

16) 김언중, 「퇴계와 행당의 교환과 그 역사적 의의」, 행당윤복선생탄신500주년기념사업회, 『행당 윤복선생 유고 백서』, 을지출판공사, 2013, 285쪽.

초고를 보내 주면서 그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 있는 등 학문적 교류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행당의 학문적 수준이 높았음을 알려주는 동시에 퇴계와 행당의 인간적 교분의 두터움 및 행당에 대한 퇴계의 각별한 예우가 있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행당이 안동부사로 재임할 당시의 행적 가운데 드러난 것은 안동향교의 중건을 들 수 있다. 2년에 걸쳐 묘우(廟宇, 대성전) 보수, 명륜당·행단(杏廡: 강학 장소)·누대·동재·서재·동무·서무·신문·협문 등을 중건하고선 안동향교중수기를 남긴다. 행당은 안동부사로 부임한 이듬해(1566년)부터 세 아들(강중, 흠중, 단중)과 생질 풍암 문위세를 퇴계에게 보내 정사亭숨에 머물면서 배우도록 했다. 퇴계가 이들에게 보낸 서신도 6편이 전한다. 그리고 「회암서절요晦庵書節要」¹⁷⁾를 행당에게 보냈는데 현재까지 후손(강진 도암 윤대현)에게 전해지고 있다. 1566년 12월 하순에 아들을 통하여 퇴계가 행당에게 준 시가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시는 행당의 신도비에도 실려 있다.

朱門博約兩工程	주자 문하의 박문博文과 약례約禮 두 공부 과정으로
百聖淵源到此明	여러 성현들의 근원이 이에 이르러 명료해 졌더라.
珍重手書留至教	진중하게 손수 쓴 글에 지극한 가르침 담겨져 있고
精微心法發羣英	정미로운 심법으로 여러 영재를 계발하누나.
嗟余竭力空頭白	내 힘을 다하다가 부질없이 머리만 센 것을 한탄한대
感子收功已汗青	그대는 공로를 이루어 이미 저서를 낸 것에 감탄하네.
更遣諸郎詢瞽見	다시 여러 아들들을 보내 내 어리석은 소견을 물어 오니
病中深覺負仁情	병중에도 어진 정 저버린 것을 깊이 깨우쳤네

윤복은 1567년 10월 병으로 인하여 안동도호부사를 사임하고 집으로 돌아 온다. 이 때 퇴계가 보낸 서신 가운데 ‘호남과 영남은 멀리 아득하게 천리 길이 넘는데도 악수로써 정을 나누며, 이별하기도 또한 불가능함에

17) 주희의 「주자대전」에서 주희의 서간문을 퇴계가 요약 또는 편집한 책으로 이황이 편집할 당시에는 「회암서절요」라 했는데 이후 제자들이 「주자서절요」라 달리 불렀다. 14권 7 책이다.

한이 더욱 깊어지기만 한다’(湖嶺遼闊不啼千里握乎絃別亦不可得恨益深耳)라는 내용과, 퇴계가 보낸 시 가운데 행당이 차운한 내용에 ‘남으로 온 우리의 도 큰 공정工程이 되었는데, 교도가 순순諄諄하여 의리가 밝혀졌다. (南來吾道大工程 教導諄諄義理明)’라는 내용으로 볼 때 고향으로 돌아와서도 두 사람의 정리가 각별했음을 알 수 있겠다. 행당은 집으로 돌아와 있으면서도 유가 서적의 경의經義에 잠심하였고, 유가 선현의 잠명서箴銘書들을 아들들에게 남겨 주어 부지런히 배우도록 권하였다. 전남 강진의 백련서사白蓮書舍에 거처하면서 집안 형인 해빈 윤향, 졸재 윤행과 왕래하면서 자연을 즐기며 학문을 논하였다.

1571년 9월 10일에는 사성司成, 1572년 9월 14일 수찬修撰, 12월 13일 장령掌書, 1573년 1월 10일 교리校理, 1월 28일 집의執義가 되고 3월 2일에는 병으로 인하여 정사呈辭를 하자, 임금이 조리할 동안 말미를 주도록 명하기도 했다. 3월 22일 부수찬副修撰, 3월 27일 집의執義에 임명된다.

이때 지평 조보가 제용감 정의 일을 잘 다스리지 못한 일로 논란을 제기한 바 있다.

집의執義 윤복尹復이 피혐避嫌하여 아뢰기를, ‘지평 조보趙溥가 전에 지평이었을 때 제용감정濟用監正으로서 색관色官의 게으름을 단속하지 못한 것을 인혐하여 출사出仕하지 않은 것은 본디 그래야 마땅한 것인데, 동료同僚가 출사를 청했으니 일이 매우 구차한 것이며, 또 그 때에 갈린 것을 마땅하지 않게 여긴 것입니다. 신은 벼슬에 있을 수 없으니, 신의 벼슬을 갈아 주소서.’ 하였다. 유희춘과 한효우韓孝友가 입궐하여 아뢰기를, ‘지평 조보가 제용감정으로서 색관원色官員의 게으름을 단속하지 못한 것을 인혐하여 출사하지 않는데 신하들이 출사를 청한 것이 이미 구차하였고, 이제 또 두드러지게 동료의 논박을 받았으므로 벼슬에 있을 수 없으니, 신들의 벼슬을 갈아 주소서.’하니, 상이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다.¹⁸⁾

18) 「선조실록」, 7년(1574)

라는 기록을 통해서 행당의 인물됨의 일면을 짐작하게 하는데 옳지 못한 일에는 과단하게 자신의 견해를 서슴지 않고 피력했다.

4월 18일 동부승지同副承旨, 6월 22일 좌부승지左副承旨에 임명된다. 그리고 같은 해 9월 19일 충청 관찰사忠淸觀察使, 10월 18일 나주 목사羅州牧使 등에 임명되지만 신병으로 인하여 귀향을 반복하였다.

한편 「행당선생유고」에 전하는 <은대일록銀臺日錄>이 주목되는 바 이 일록은 1572년 4월부터 1573년 9월까지의 일록이다. 은대銀臺는 왕명을 출납하던 승정원의 별칭임을 감안 할 때 승지로 있던 시기의 기록으로 볼 수 있다. 문집에 실리게 된 경위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중요한 자료라 생각된다. 1572년 기록은 4월 23일, 5월 16일, 5월 29일 3회에 지나지 않지만 「선조실록」이나 「선조수정실록」에는 이 일자에 해당하는 기록이 없으므로 더욱 귀하게 여겨진다. 1573년 일록은 4월 19일부터 9월 12일까지 120일 분의 기록이다. 4월 18일에 승정원의 동부승지로 임명되어 6월 22일 좌부승지가 되었다가 9월 19일 충청관찰사로 보임된 점을 감안한다면, 승지로 임명받은 다음날부터 승지로 있던 기간 중의 일록인 셈이다.

다만, 6월 25일부터 7월 11일까지와 중간 중간 몇 일 분이 빠져 있다. 이 <은대일록>의 기사가 있는 날짜를 「선조실록」과 비교하여 보면 <은대일록>의 120일분 가운데 42일분에 해당하는 내용이 「선조실록」에는 빠져있다. 반면에 「선조실록」에 있는 날짜에서 <은대일록>에 빠진 부분은 12일분에 해당된다.

행당은 병으로 귀향하여 있을 때에도 책을 벗 삼아 유유자적하게 한가로운 노년을 도모코자 했는데 1574년 겨울 죽정산竹井山 서쪽 화곡禾谷의 기슭에 한 칸 집을 짓고 노년을 보냈다. 1576 8월 병을 얻어 1577 1월 1일 66세의 나이로 세상을 뜨자 그해 4월 4일에 강진현 서쪽 20리에 장사 지냈다. 선조는 예관(예조정랑 이원익)을 보내 치전致奠하였다. 행당은 강중(剛中, 1545-1627), 흠중(欽中, 1547-1594), 단중(端中, 1550-1608) 등 세 아들을 두었으며 교유 인물로는 하서 김인후

(1510-1560), 미암 유희춘(1513-1577) 등을 들 수 있다.

행당이 세상을 뜬 1577년 4월에 생질인 풍암 문위세(1534-1600)가 행장을 지었다. 1628년에는 갈오산(현 강진군 도암면 용흥리)으로 이장하였다. 이 때 전후 배위의 묘소도 함께 모시었다. 1688년에는 절상지환折傷之患이 있었고 1689년에는 묘비가 개수된다. 1698년 현손인 윤주미(尹周美, 1641-1698)가 권유(權愈, 1633-1704)에게 신도비명을 받았는데 이로 보면 1698년경에 신도비를 건립하려 했음을 알 수 있다. 1822년에는 9대손 곽원橘園 윤규로(尹奎魯, 1769-1837)가 신도비의 명을 전서로 썼고, 10대손 윤종겸(尹鍾謙, 鍾洙, 1793-1853)이 원래의 비문에 추가 비문을 지어 현 위치에 신도비를 세웠다.

1848년에는 「행당선생유고」를 간행코자 신도비를 세울 때 주도하고 비문글씨를 쓴 윤종겸(종수)이 중심이 되어 도산서원을 찾아가 퇴계선생이 행당 윤복에게 보낸 서찰을 등사해 와 정암 조광조의 후손인 조형복趙亨復과 퇴계 이황의 후손인 이휘녕李彙寧, 이은순李殷淳 등의 서문을 받았다. 이 유고는 1930년에 5권 3책으로 중간되었다. 1권은 시와 부, 제문, 안동향교중수기 등이 있고, 2권(聯芳集)은 행당 형제간의 부賦, 3권은 <전라도도사시일록 全羅道都事時日錄>과 <은대일록銀臺日錄>, 4권은 부록으로 퇴계선생에게 받았던 서찰, 만사, 수창했던 시, 5권에는 행장, 신도비명, 연보 등이 있다. 1851년 12월 17일에는 관학 통문에 의거하여 강진의 금곡서원에 이익재선생과 제향되었으며 1857년 여름에는 묘 인근에 재실인 영모당永慕堂을 지었다.

4. 연구 의의

필자는 <윤복의 생애와 관련 유적>¹⁹⁾이란 글을 쓴 바 있지만, 시에

19) 목포대학교, 『목포대학교박물관 20주년 기념논총』, 2003.

비해 많은 양을 차지하는 행당의 부문학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했다. 「행당선생유고」에는 시 4편과는 비교도 안될 만큼 많은 부가 있는데 〈五國城〉 〈二南〉 〈目無全牛〉 (2편) 〈忍〉 〈關雎〉 〈沆瀣〉 〈陟岵〉 〈黔之驢〉 〈掩骼〉 〈弔裴烈婦文〉 〈祝網〉 〈次感士不遇〉 〈大瓠〉 〈南征〉 〈仁者如射〉 〈誤中副車〉 (2편) 〈牛山〉 〈潤德泉〉 등 20편이 그것이다. 이들은 「시경」 〈이남〉 〈관저〉 〈척호〉, 「예기」 〈엄격〉, 「맹자」 〈인자여사〉 〈우산〉, 「장자」 〈인〉 〈목무전우〉 〈대호〉, 「초사」 〈남정〉 등과 도잠陶潛의 〈사불우부〉 를 차운한 〈차감사불우〉 와 유종원柳宗元의 〈삼계三戒〉 를 원용한 〈검지려〉, 도은陶隱 이송인李崇仁의 〈배열부전〉 을 원용한 〈조배열부문〉 장량張良의 〈오중부〉 를 차운한 〈오중부차〉 로서 행당의 이와 같은 20편의 부문학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에서 연구 의의를 지닌다.

우선 그가 영남 사림의 맥을 호남에 계승시킨 금남 최부의 제자인 어초은 윤희정의 자제라는 점에서 그의 문학전통과 문학정신에 대한 탐구가 요구된다. 또한 두구춘斗衢春 삼걸三傑²⁰로 칭송된 호남삼걸의 한 사람이요, 기묘사화에 연루되어 억울하게 유배갔던 굴정橋亭 윤구尹衢의 아우이자 제자로서, 부당한 정치현실에 염증을 느낀 나머지 ‘불락사환상유퇴서지지不樂仕宦常有退棲之志’를 바랐던 인물 곧 조선시대 유학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언필칭 귀거래를 노래하는 등 현실정치에 참여하기보다는 조용히 물러나 살기를 바랐던 인물의 작품이란 점에도 관심 가질만하다.

뿐만 아니라, 박상(1474-1530), 임억령(1496-1568), 나세찬(1498-1551) 등 호남의 선비들이 주로 언간言諫직에 있으면서 바른말을 아끼지 않고 서술시를 통해서 당대 모순된 현실을 고발, 풍자, 비판하고 개혁하고자 했던 것처럼, 행당 역시 정승 이기李芾의 부당한 거선巨船 요구 행동 등에 대해 의연하게 거절하는 등 강직한 성품으로 불의에 맞섰던 용기 있고 신념 굳은 선비의 현실 모순에 따른 개혁 의지를 서술시에 담

20) 최산두, 윤구, 유성춘 등 이름의 끝 자를 따서 두구춘 삼걸이라 불렀음.

왔을 것 이라는점, 호남 한시문학사의 한 특징인 서술시의 전통을 양응정(1519-1581), 생질 풍암 문위세(1534-1600), 집안의 사위 다산 정약용(1762-1836) 등에게 이어주었다는 점, 특히 풍암에게는 선비의 자세와 임무를 가르쳐 뒷날 임진왜란 당시 의병활동으로 나라를 구하는데 앞장서도록 했다는 점, 퇴계선생과 논했던 경의經義, 시무時務, 변석辨析 등의 내용이 함축되어 담겨져 있을 것이리라는 점 등에서 그의 부문학은 일정한 담론적, 시문학사적 연구 의의를 지닌다고 하겠다. 다음에서 절을 달리 하여 행당 부문학 세계의 미학을 살펴보기로 한다.

5. 행당 서술시의 미학 세계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행당은 20편의 부賦를 남겨놓았다. 필자는 부賦를 서술시로 개념 규정하였는바²¹⁾ 행당의 서술시는 크게는 호남 시단의 서술시 전통을 이었다는 점에서 주목되며, 작게는 그만의 독특한 서술시적 세계를 열어 보여 다음 세대인 풍암 문위세(1534-1600) 등에게 이어주었다는 점에서 뜻 깊다 할 수 있다. 행당의 서술시는 그만의 독특한 미학 세계를 이루었는데 그 실상은 다음과 같다. 1) 역사의 전범과 교훈, 2) 종경宗經 정신 함양의 지향, 3) 성선과 의리 중시, 4) 귀거래와 내성 지향, 5) 군자도와 수신 지향 등이 그것이다.

1) 역사의 전범과 교훈

五國城賦²²⁾ 오국성부

21) 줄고, 「송재 나세찬의 부문학 세계」, 박준규 · 최한선, 『송재 나세찬』, 태학사, 2000, 376-378쪽.

22) 趙, 秦, 漢, 隋, 唐 등 5개 국의 성터를 두고 읊음.

勃海東涯 발해의 동쪽 끝은
 肅愼遺墟 속신의 옛 터이니
 背長白之岌嶮 장백산의 위용을 뒤에 두었고
 帶混洞之紆如 혼동강²³⁾의 굽이침을 띠처럼 둘렀다
 孤城塊兮周遭 외로운 성터는 여러 차례 변고를 당했으니
 故堞頽其隱嶙 그 까닭에 성채는 무너져 숨겨진 듯 희미하다
 山茂鬱兮獸萃 산이 뻗뻗하니 짐승들이 모여들고
 野莽蒼兮無人 들은 넓은데 사람들이 없도다
 曰昔宋帝之攸囚兮 옛날 송제²⁴⁾가 갇힌 곳이라고들 하는데
 至今蕭瑟其風烟 지금에 이르러선 쓸쓸히 안개만 무성하네
 彼金虜之桀驚 저 금나라 오랑캐의 노략질은 사납고 흉악했으니
 自東荒之窮邊 동쪽의 거칠고 궁벽한 곳으로부터 시작되었다
 用二千以肇起兮 2천의 군사를 써서 처음 일어났는데
 敢滑夏而滔天 여름의 이점을 틈타 하늘을 뒤엎는 듯 했다
 況趙氏之立國 조씨가 송나라를 세운 것은
 本仁深而德宏 인을 깊게 하고 덕을 넓게 하는 데 근본을 두었으니
 藝祖定其遠規 예조²⁵⁾는 멀리 내다볼 줄 아는 규칙을 정하였고
 三宗養其治平 세 임금은 그 치세의 평온을 취하였도다
 胡不拔之鞏基 어찌하여 뽑히지 않을 굳건한 기초가
 奄一朝而自傾 문득 하루아침에 기울어져
 俾中葉之天王兮 중간의 왕들로 하여금
 作孤囚於胡城 오랑캐 성에 갇히게 하였을까
 慨此禍之醞釀 개탄스럽게도 이런 재앙의 빚어짐은
 始安石之紛 왕안석의 분란에서 비롯된다
 更甘自同於商賈 더욱 장사치의 이욕과 하나 되기를 달게 여겨
 致鷄狗之失寧 닭과 개들도 편안함을 잃어버린 데에 이르고 말았다
 繼道君之荒亡兮 임금의 도리를 이어감은 황망하였고
 意不在於天下 뜻 또한 천하를 위함에 있지 않았다
 信紹述之邪論 꼬리를 무는 사악한 논의를 믿어
 崇奸回而滿暇 간사한 무리를 숭상하니 한직閒職들만 가득했고
 籍忠賢爲奸黨 충신과 어진 이는 간사한 무리가 되게 하여

23) 흑룡강, 송화강, 압록강 등 설이 많음.

24) 북송의 8대 휘종과 9대 흠종이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에 붙들려갔던 사실을 말한 듯.

25) 송나라 태조 조광윤

貶黜遍於存亡 쫓겨나고 강등되어 존망의 기로에 놓였다
 矧道教以心蠱兮 하물며 도덕과 교화도 마음을 미혹시켜
 又花石焉志喪 꽃과 돌조차도 뜻을 잃었을 정도였다
 土木從以并興 토목 사업을 연이어 일으키니
 戕國本以不遑 나라의 근본이 죽여져도 어찌할 겨를이 없었다
 民既怨兮盜起 백성은 원망하고 도적들은 일어서니
 天亦怒兮分異 하늘이 성내어 이변을 보였으나
 猶不知夫內脩之疎闊 되레 안을 다스림이 소홀함을 알지 못하고
 耀好大之夸志 크게 드러내어 자랑하기를 좋아하였다
 委闕外於刑餘 도성의 밖은 형여²⁶⁾에 맡기어
 俾爭鋒乎豺狼 이리와 승냥이 같이 사나운 적과 싸우게 하였으니
 助狃勝之猾虜 버릇 나쁜 교활한 오랑캐를 도우는 격이 되었고
 背舊好於鄰疆 사이좋던 이웃 나라를 등지게 하였다
 殆發釁於一州 거의 한 고을에서 싸움의 시초가 생기면
 旋毒鋌之自當 독의 칼날이 저절로 돌아올 것이요
 勢日就夫瓦解 형세는 날로 더하여 나라는 무너지고
 已無救於顛墜 이미 구할 수 없이 넘어지고 추락할 것이다
 雖汲汲於遜位兮 설사 임금의 자리를 넘겨주기에 급급하여도
 疇敗禍之能避 누가 패배한 화를 피할 수 있으리요
 嗟淵聖之重昏 아, 성충은 거듭 어두워지고
 又日惑於和議 또 날마다 화의에 유혹되어
 濱危亡而不懲 위급하고 망함에 이르러서는 징계하지 못하고
 拒忠諫其益篤 충성스러운 간언을 거부함이 더욱 심해졌다
 竟父子之同囚 마침내父子가 같이 갇히는 몸이 되었으니
 啜其泣兮 그 눈물을 삼킴이여
 何嗟及嗚呼 한스럽고 슬픔이여
 自古及今 예로부터지금까지
 國破家殃 나라가 망하고 집이 망함이 있었으니
 有秦有漢 진이 있었고 한이 있었으며
 曰隋曰唐 수라고 하고 당이라고 말한다
 或軫臂而被奪 혹은 팔이 잘리고 수탈을 당하며
 或面縛而牽羊 혹은 손을 뒤로 묶고 양처럼 질질 끌리고
 雖各備其慘楚 그 참혹한 고통은 각기 다를지라도

26) 환관 또는 승려

至窘辱乎一場 군색하고 욕됨은 한결같이 똑 같았다
 豈有萬乘天子 어찌 만승천자가 있겠는가
 係累醜虜 추한 포로처럼 결박될 뿐이었다
 父兮子兮 아버지와 이들이여
 諸姑諸母 여러 시어머니와 여러 어머니여
 王子皇孫 왕자여 황손이여
 妃嬪媵嬙 비빈이여 잉첩이여
 舉族播越 모든 피붙이가 방랑객 신세가 됨이여
 冒犯風霜 온갖 풍상을 무릅쓰고
 萬里沙漠 만 리 사막에서
 氈裘駱漿 흉노의 털옷 입고 낙타 젖을 먹어야 함이여
 音問難通 소리로 물어도 소통이 어려운 땅
 況望生還 황차 살아서 돌아가길 바라겠는가
 夢四日於故國 고국에서는 나홀 안으로 돌아가길 꿈꾸었으나
 寄哀怨於金環 금나라가 막음에 슬픈 원한에 잠길 수밖에
 賴冷山之孤臣 냉산의 외로운 신하를 힘입고 싶음이여
 始桃李之一達 처음에는 어진 선비로 천거된 인물이었다
 夏之日兮 여름의 태양이여
 冬之夜苟延 겨울의 밤이 구차스럽게 뻗어남이여
 羈窮之歲月 궁벽한 처지에 묶여진 세월이여
 三十有餘年 삼십 년이 넘음이여
 寄命於幽閉 목숨을 유폐된 곳에 의지함이여
 有甚於懷愍之在晉室者哉 회제와 민제 때 진나라에서 있었던 일보다 심함
 이여
 幸重耳之尚在 다행히 진나라 문공²⁷⁾이 살아 있어서
 紹墜緒於已絕 실추됨을 잇고 이미 끊어짐을 잇는다 하여도
 然猶惑於奸邪 그런데 되레 간사하고 사악함에 유혹되어
 沮忠臣而自縮 충신은 막히고 저절로 위축되었도다
 偷一隅之偏安 구차하게 한 귀퉁이에 편안한들
 忘戴天之太恥 하늘에 닿는 큰 부끄러움을 잊을 수 있으랴
 祗日事於奉貢 단지 날마다 공물을 바치는 것을 일삼는다면
 終不能救其拘囚 끝내 갇힌 사람을 구할 수 있겠는가
 豈皇天之不佑 어찌하여 황천은 도움이 없고

27) 중이: 진나라 문공의 이름

胡多昏其算謀 그 책략은 어찌 그리 어두운지
 噫戎夷之爲患 아, 오랑캐의 환란을 일삼음이여
 自前古而固然 예로부터 진실로 그러했도다
 仰先王之御宇 선왕의 나라를 다스림을 우러르니
 威內脩之是先 모두 안의 닦음을 우선하였으며
 又克詰其戎兵兮 군비와 군대를 자세히 묻고 살피어서
 嚴守禦以外備 엄중하게 외부의 침입에 대비하였으니
 彼桀驚而鷙猛 저들의 매우 사납고 엄청나게 거침이여
 信非我之族類 실로 우리의 겨레붙이와는 다르도다
 旣失治而啓釁 이미 다스림을 실패하여 틈이 열리면
 宜受禍之至是 화를 받음은 이와 같은 지경에 이른다
 荒涼古城 황량한 옛 성이여
 塞於頽圉 무너진 성터에 길이 막히니
 去國孤魂 나라를 떠난 외로운 신하여
 萬里無歸 만 리 땅에서 돌아가기 어렵도다
 噫後來之人牧 아, 후래의 목민관이여
 盍知鑑而 어찌 알아서 이를 거울삼지 않을 것인가
 三思鑑之 세 번 생각하고 거울삼게나
 如何願先盡其自治 어찌 하여튼 스스로 다스림을 다하도록 원하게나
 苟自治之已盡 진실로 스스로의 다스림을 이미 다 했다면
 守固在於四夷 사방의 오랑캐를 굳건히 지킬 수 있으리라

위에서 본 <오국성부>는 117행의 장편이다. 중국의 송, 진, 한, 수, 당 등 오국의 성터를 대상으로 나라의 흥망에 대한 이유를 차분하고 침착하게 서술하고 있다. 우선 시의 처음과 중간 그리고 끝이 있다는 점에서 이야기 시인데 이야기를 묘사보다는 서술에 의존하고 있는²⁸⁾ 훌륭한 서술시이다. 무리한 토목 사업 등으로 나라의 근본이 무너지자 백성들이 원망하며 도둑이 되어도 어찌할 수 없었기에 하늘이 이변을 보여 노함을 나타냈지만, 되레 그것을 상서로운 징조하며 자랑하고 좋아하다가 오랑캐에게 나라를 통째로 빼앗기게 되었다는 설화적 요소를 삽입하여 전달의 효과를

28) 김준오, 「서술시의 서사학」, 현대시학회편, 『한국서술시의 시학』, 태학사, 1998, 27쪽.

살렸다.

다섯 나라의 흥망은 결국 내수內修의 유무에 달려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데 내수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공물을 바쳐도 갇힌 사람을 구할 수 없고, 그런 자에게는 하늘의 도움도 없다는 준엄한 교훈을 말하고 있다. 이어 군비軍備를 극진히 하여 외침에 대비해야 함도 강조했다. 행당은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 15년 전에(1577) 세상을 떴지만 이미 유비무환의 국방을 말하였다.

나라는 “이미 다스림을 실패하여 틈이 열리면, 화를 받음은 이와 같은 지경에 이른다. 황량한 옛 성이여, 무너진 성터에 길이 막히니, 나라를 떠난 외로운 신하여, 만 리 땅에서 돌아가기 어렵도다, 아, 후대의 목민관이여, 어찌 알아서 이를 거울삼지 않을 것인가, 세 번 생각하고 거울삼게나, 어찌 하여튼 스스로 다스림을 다하도록 원하게나, 진실로 스스로의 다스림을 이미 다 했다면, 사방의 오랑캐를 굳건히 지킬 수 있으리라” 마지막 결론 부분인데 일방적 선언의 주장이라기 보다는, 설득적인 서술의 힘으로 자신의 주장을 차분히 펼쳐 보인 점은 행당 특유의 독특한 글쓰기 방식이라 하겠다. 이와 같이 역사적인 사실을 전범으로 내세워 교훈을 삼고자 창작한 것으로 <엄격부>, <항해부>, <인부>, <오중부차부>, <축망부> 등이 있다.

2) 종경정신 함양의 지향

二南賦 이남부²⁹⁾

咨詩歌之永言 아, 시와 노래의 말은
 所以發其心志 마음과 뜻이 우러나는 것이다
 故有正兮有邪 그러므로 바르기도 하고 사악하기도 하여
 隨所感而異致 느끼는 바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余於詩兮觀二南 내가 시경의 이남 장을 보았는데

29) 시경의 주남과 소남을 이남이라 하고 正風으로 여김

夫何性情之純粹 성과 정이 매우 순수하였다
 哀已至而不傷 슬픔이 커도 상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고
 樂亦極而不淫 즐거움이 많아도 음탕함에까지는 이르지 않았다
 盖得眞而得中 대개는 진실을 얻고 중정을 잡고 있으니
 信風詩之正音 참으로 풍시³⁰⁾의 바른 소리라 하겠다
 茲醞釀之有 이는 오랜 시간 숙성된 것과 같으니
 自想文王而起敬 주 문왕을 생각하면 공경심이 절로 인다
 承累世之積德 여러 대를 이어 덕을 쌓았고
 施至仁而發政 지극한 어짐을 베푸는 정치를 하였다
 美有莘之窈窕 신나라³¹⁾의 아름다운 미인³²⁾이 있었으니
 乃上帝之作合 상체가 짝을 구하여 주었도다
 信君子之好逑 참으로 군자의 훌륭한 짝이었으니
 德幽閑而貞淑 덕이 깊고 품행이 정숙하였다
 車百兩而將之 수레 일백 량으로 시집을 보냈으니
 爰友之而琴瑟 이로써 우애롭고 금실이 좋았도다
 嗣聖母之徽音 성모의 아름다운 가르침을 이어
 化尤弘於內助 내조의 공을 더욱 크게 이루었고
 儼莊敬於閨闈 궁중의 일들을 엄숙하고 공경하게 하니
 造大道之權輿 대도의 시초³³⁾가 이루어졌도다.
 身既脩而家齊 몸이 닦아지고 집안이 다스려지니
 又何有於治平 나라를 다스림에 무슨 걱정 있으랴
 命維新於舊邦 옛 나라를 새롭게 하라는 명을 받들어
 國寢辟而稍宏 궁벽한 곳을 넓히어 나라가 조금씩 커지니
 肇徙豐而移都 비로소 풍 땅으로 수도를 옮기어
 分岐陝之西東 기협을 동과 서로 나누어서는
 俾采邑而行化 채읍³⁴⁾에서 교화를 퍼도록 하기 위해

30) 민가에서 불려지는 가요의 시를 말한다. 윗사람의 교화를 입어서 말이 있고, 그 말이 죽히 사람을 감동시키므로, 마치 물건이 바람의 움직임으로 인하여 소리가 있고, 그 소리가 죽히 물건을 움직이는 것과 같아서 풍이라 한다. 「시경」 국풍

31) 주 무왕의 어머니 太姒와 하 우왕의 어머니는 모두 이 나라 출신이었다.

32) 문왕의 비인 태사를 가리킴

33) 권여: 시초

34) 봉혜준 땅, 주나라는 본래 禹貢의 雍州 경내인 岐山의 남쪽에 있었는데 后稷의 13세 손인 古公亶父가 비로소 이땅에 거주하였다. 아들인 王季 歷에게 전하고 손자인 문왕 昌에 이르러 나라가 넓어지자 도움을 豊땅으로 옮긴 뒤 기주의 옛 땅을 나누어 주공 奭과 소공 奭에게 나누어 주었다. 무왕 發에 이르러 다시 도움을 鎬로

委周召之兩公 주공³⁵⁾과 소공³⁶⁾에게 각각 맡기었다
 或爲政於國中兮 때론 나라 안에서 정사를 보고
 或諮詢於諸侯 때론 제후에게 자문을 구하면서
 布君德之未宣 임금의 덕 품이 미치지 않을까 하여
 用究暢於僻陬 외지고 궁벽한 곳까지 퍼지도록 힘쓰니
 澤洋溢於遐邇 은혜와 혜택이 먼 데까지 양양하게 넘쳐서
 益深廣而無遺 이익은 깊고 넓어 빠진 곳이 없었다
 被江沱兮漸汝漢 강물이나 빗물처럼 점수와 여수, 한수 지방까지 혜택이
 미치니

民皞皞兮物熙熙 백성들은 침착하고 물산은 풍만하였도다
 彼關雎之取興 저 관저 장의 흥³⁷⁾과
 及樛木而螽斯 규목 장과 종사 장에서는
 諒德感於宮中 진실로 어진 덕이 궁중을 감화시켜
 衆妾樂而稱之 여러 첩들이 화락하고 서로 칭찬함을 말하였다
 桃夭夭兮採芣苢 도요 3장과 부이 3장
 漢之廣兮遵汝墳 한광 3장과 여분 3장은
 男女正而室家和 남녀가 올바르게 집안이 화락하여
 變淫亂而懷夫君 음란함을 바꾸어 부군을 사모한 것이다
 逮鵲巢兮草蟲 작소 3장 초충 3장에서
 暨采蘋兮菜蘩 채빈 3장에 이르기까지³⁸⁾
 畏厭浥之行露 엽읍행로를 두려워 한다는 행로 3장
 愛蔽芾之甘棠 폐괘감당을 사랑한다는 감당 3장
 美羔羊之委蛇 양고위이가 아름답다는 양고 3장
 感殷雷於山陽 은뢰산양에 감동받았다는 은기뢰 3장
 標有梅兮小星 표유매 3장과 소성 2장
 江有汜兮野有麇 강유사 3장 야유사군 3장 등은
 咸遵教於召伯 모두 소공 백의 교화를 쫓아
 沐王化而自新 임금의 덕화를 입고 스스로 새로워짐을 노래한 것이다
 矧苗葭之騶虞 하물며 줄가로 시작하는 추우 2장

윽기어 商나라를 이겨서 천하를 차지하였다.

35) 이름은 단, 주 무왕의 동생

36) 이름은 석, 주공과 같은 姬씨

37) 흥은 먼저 다른 사물을 말하여 윽고자 하는 말을 일으키는 것이다. 「시경」, <국풍>

38) 끝의 菜蘩은 아무래도 윤율 상 행당이 추가한 듯, 召南에는 없는 구절이다

與麟趾之振振 인지진진으로 시작하는 인지지 3장은³⁹⁾
 觀王化之大成 임금의 덕화가 크게 이루어져
 俗已化而歸純 풍속이 이미 교화되어 순한 데로 돌아감을 보인 것이다
 斯里巷之歌謠 이처럼 마을과 거리에서 불려진 노래는
 咸厥言之粹 모두 그 말이 순수하도다
 然因此而推之 이로써 미루어보건대
 天下兮(缺)천하여(중간 결)
 唐虞之後 요임금의 당과 순임금의 우 이후에는
 先故姬公之制禮 우선하여 옛 희공⁴⁰⁾의 예법을
 采以登於管絃 채집하여 관현악기에 올렸고
 用爲樂於房中 방안의 음악으로 썼으니
 本鄉黨於邦國 본래는 향당에서 방국에 미치었다
 明先王之風化 선왕의 풍화를 밝히어
 俾後來之取法 후래자에게 취하여 법 삼게 하니
 竟致雍熙於成康 마침내 성왕과 강왕 때에 이르러
 甄八荒於壽域 온 나라⁴¹⁾가 두루 다스려짐을 보였다
 彼雅頌之和敬 저 시경의 아와 송의 화목하고 공경함은
 皆由斯而乃作 모두가 이런 데서부터 연유한다
 哀美人之一去兮 슬프구나 미인이 한번 돌아가시어
 慨盛治之隨沒 개탄스럽게도 풍성한 다스림이 사라져버렸다
 君臣紊而失道 군신이 문란하여 도를 잃었고
 黍離降於列國 서리 3장과 같은 시가 여러 나라로 이어졌다⁴²⁾
 紛邠鄘與鄭衛 패, 용, 정, 위나라 등이 다투어
 又淫亂之是崇 음란한 노래를 숭상하였으니
 桑間濮上之雜興 상간복상⁴³⁾과 같은 잡스러운 노래가 일어났는데
 莫有彷彿乎 비슷함이 없었다⁴⁴⁾
 二篇之正風 두 편의 정풍과는

39) 인지지 3장은 주남 시인데 소남 시를 말하다가 갑자기 주남 시를 말한 것은 왕의 덕화라는 주체의 일치에서 그렇게 배열한 것으로 보인다.

40) 주 왕실의 성씨는 희씨였다.

41) 팔황: 온 나라, 전 세계

42) 주나라 왕실의 멸망을 슬퍼한 시이다.

43) 잡스러운 노래, 위 영공과 사광의 대화에 나옴, 「행당선생유고」, 47쪽, 참조

44) 주남과 소남은 국풍이라 하여 높이고, 나머지 패나라에서 빈나라까지 12개국 시는 열국시라 하여 격이 떨어진 것으로 보았다.

况世遠而逾下 하물며 세상이 멀어져 하대로 오면서
 詩竟以之俱亡 시는 마침내 모두 없어져버렸다⁴⁵⁾
 歷世歸來百千載 세대가 흘러 백천 년이 지나도록
 曾未覩夫哲王 밝은 왕을 보지 못하였도다
 疇能齊家而治國 누가 능히 집과 나라를 다스리며
 用浹化於萬方 만방에 교화를 두루 미치게 할 것인가
 鄙閨門之多醜 아녀자들로 하여금 한껏 추하게 만들었고
 已大本之乖張 이미 나라의 큰 근본이 어그러져
 咸規規於末外 모두 그 꼬트머리 것에만 집착할 뿐이니
 焉古治之能望 어찌 옛날의 치세를 바랄 수 있으랴
 嗟斷編之流傳 아, 단편으로 흘러 전해지는 것은
 庶諷詠而想像 거의가 그때의 시를 읊고 상상할 뿐이다
 喟有志於平治 아, 나라를 평화롭게 다스리고자 한다면
 盍觀此而效倣 모두가 이를 보고 본받아야 할 것이다
 吾夫子之撰定 우리 공자께서 시경을 찬정하실 때
 冠三百之遺編 삼백여 편으로써 대강을 삼았으니
 曰猶墻面而立勉 벽을 마주하고 힘쓴 것과 같다고 말할지라도
 後人以學焉 후세인들은 배워야 할 것이니라
 余生世之苦晚 내가 세상에 나온 지는 훨씬 뒤늦은 세상이어서
 懷古人而已邈 고인을 생각함이 아득히 멀다
 恨不生於當時 그 당시에 태어나지 못함이 한스럽기만 하다
 一謳唵其聖澤 한번쯤 그 성택을 읊어보고 싶다
 庶卽事而玩理 무릇 일에 나아가 이치를 완미하고
 以養心而有立 마음을 길러 뜻을 세우고 싶다
 試披卷而三復 시험 삼아 책을 펴서 세 번 반복하면서
 極明昏而不輟 끝까지 어두운 것을 밝히고자 멈추지 않는다

<이남부>는 111행의 장편이다. 이는「시경」에 대한 해설이면서 평가이
 며 종경宗經 정신의 함양을 권유하는 유학자적 자세의 발현이다. <이남二
 南>은 「시경」의 국풍 가운데 <주남周南>과 <소남召南>을 말한다. 주지하
 는 바와 같이 <주남>은 문왕과 그의 비 태사太姒와 관련한 내용이 주를
 이루는데, 주된 요지는 문왕 자신이 이미 몸이 닳여지고 집안이 가지런해

45) 시를 채집하여 그로써 정사를 가능한 정치 풍토가 사라졌다는 뜻.

진 효험을 드러내었기에, 그의 비 태사 같이 훌륭한 아내를 얻을 수 있었으며, 문왕의 덕과 태사의 덕이 합쳐져서 덕치를 할 수 있었음을 말한 것이다.

<소남>은 소공召公인 석奭과 관련한 채읍采邑에서 불려진 노래이다. 이 또한 문왕의 덕과 관련된 것이지만, 구체적으로 문왕을 내세우기 보다는 대부와 그 부인을 내세워 그들의 덕이 백성에게 미침을 찬양한 것이다. 다시 말하여 여러 나라의 왕과 대부 그리고 그 부인들이 문왕의 교화를 입어 능히 몸을 닦고 그 집안을 바로잡았기에 그 교화가 백성에게까지 미루어졌다는 것을 말하여 “천하를 다스림은 집안을 바로 잡는 것이 최우선이며, 천하의 집안이 바루어지면 천하가 다스려진다”⁴⁶⁾는 것을 나타냈다. <이남>은 집안을 바루는 도라 했기에 공자는 아들 백어伯魚에게 사람으로서 <주남>과 <소남>을 배우지 않으면 얼굴을 담에 맞대고 선 것이라고 하였을 것이다.

행당은 <이남부> 전반에서「시경」의 <이남>에 대하여 간략하나마 비교적 정확하게 분석하고 평가를 하고 있다. 예컨대 “저 관저 장의 흥과 규목 장과 종사 장에서는 진실로 어진 덕이 궁중을 감화시켜, 여러 첩들이 화락하고 서로 칭찬함을 말하였다”라는 평설을 하고 있음이 그 것이다. 여기서 행당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덕과 화락인데 결국 왕이 덕으로 다스리면 그를 따르는 모두가 화락하게 됨을 말하고 있다.

이른바 “선왕의 풍화를 밝히어, 후래자에게 취하여 법 삼게 하니, 마침내 성왕과 강왕 때에 이르러, 온 나라⁴⁷⁾가 두루 다스려짐을 보였다, 저 시경의 아와 송의 화목하고 공경함은, 모두가 이런 데서부터 연유한다”라고 한 데서 알 수 있다. 하지만 “슬프구나 미인이 한번 돌아가시어, 개탄스럽게도 풍성한 다스림이 사라져버렸다, 군신이 문란하여 도를 잃었고, 서리 3장과 같은 시가 여러 나라로 이어졌다, 패, 용, 정, 위나라 등이 다투어, 음란한 노래를 숭상하였으니”에서 말하듯 군신의 도가 무너져 버리

46) 성백효, 『시경집전』상, 전통문화연구회, 1993, 72쪽.

47) 팔황: 온 나라, 전 세계

면, 왕의 덕을 칭송하는 시가 사라짐은 물론 안방 부녀들의 행위가 추하여지는 등 나라의 큰 근본이 어그러지므로 나라를 다스릴 수 없게 된다고 했다.

결국 행당은 나라를 평화롭게 다스리고자 하면 <이남> 같은 시를 배워야함을 강조했는데

“아, 나라를 평화롭게 다스리고자 한다면, 모두가 이를 보고 본받아야 할 것이다, 우리 공자께서 시경을 찬정하실 때, 삼백여 편으로써 대강을 삼았으니, 벽을 마주하고 힘쓴 것과 같다고 말할지라도, 후세인들은 배워야 할 것이니라”가 그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행당의 서술시 글쓰기는 ㉠무엇을 원한다면, ㉡무엇을 해야 할 것이다, ㉢누가 무엇을 할 때, ㉣무엇을 하였으니, ㉤무엇 할지라도, ㉥무엇해야 한다는 식의 비교적 긴 호흡의 서술을 하고 있음이 주목된다.

행당은 이처럼 유학 경전의 가르침을 모든 것의 중심으로 여기는 이른바 종경宗經 정신에 투철한 유학자였으며, <이남부> 같은 서술시를 통하여선 자신의 그런 정신을 다른 사람이 함양하기를 바랐다. 이러한 지향을 지닌 작품으로는 <관저>, <척호부> 등을 들 수 있겠다.

3) 성선과 의리 중시

牛山賦 우산부

中天地而大觀 천지의 사이를 대체적으로 바라보면
 悟彼我之一理 저와 내가 하나의 이치인 것을 깨닫게 된다
 要原始於發育 모름지기 발육은 원시의 상태에서 시작되는데
 渾融然其生意 혼융하여 저절로 그 뜻이 생겨난다
 眷齊疆之東南 돌아보건대 제나라 동남 쪽에
 有隆岡之高峙 우뚝하게 높은 산이 있었는데
 乃拳石之寔多 그곳에는 주먹 크기의 돌이 많았으며
 信土壤之攸崇 참으로 토양이 풍족하였다

雖隕然而無朕 비록 무너질 듯 했지만 어떤 징후가 없이
 具生生之元功 여러 생물이 살아가는 으뜸의 공을 가졌다
 茲萬彙之根托 여기에 만물이 뿌리를 내리고
 日胚胎乎其中 그 가운데서 생명을 배태하였으니
 當春陽之和煦 봄이면 태양의 따스함을 만나고
 靄雨露之流澤 비와 이슬의 은택도 풍족히 입었다
 翁通透而無間 두루 통하여 틈이 없고
 胞造化之塊坵 조화의 합쳐짐이 끝이 없으며
 萌宿莖而句尖 묵은 뿌리에서 싹이 터 뾰족하고
 發舊業而達蘖 옛 포기에서 피어나 움이 텃도다
 長柔茂之猗猗 새싹은 자라나 아름답게 무성하고
 鬱峯巒之蔭邃 봉우리는 울창하여 깊숙한 그늘을 이루었다
 豈拱把之獨挺 어찌 아름답드리 나무가 홀로 우뚝 솟을 손가
 多尋丈之櫛比 여덟 자 길이의 나무가 즐비하니
 求椽桷之無不同 연각⁴⁸⁾을 구함에 한결같지 않음이 없었고
 材棟樑之咸備 동량의 재목들이 다 갖추어져 있었다
 自都鄙之始近 도성으로부터 가까운 곳부터
 爭斲伐之相尋 다투어 찍어 베기를 서로 이어나
 無禁防而時入 금지하여 막는바가 없어 수시로 드나드니
 孰無心於穹林 누구라도 하늘 높은 숲에 무심하였도다
 但櫛櫨而無餘 다만 베어낸 그루터기요 남은 것이 없는데
 又牛羊之來侵 또 소와 양이 와서 침범하였도다
 舉粵藁其皆盡 여러 순과 싹이 한꺼번에 없어졌으니
 惜從兆之無緣 안타깝구나, 앞의 조짐을 뒤따를 인연이 없어짐이어
 嗟戕賊之多路 아, 쳐서 죽인 길만 많음이어
 寧獨山之性然 정녕 외로운 산의 본래 모습이라
 所以證之不遠兮 증명해 보일 까닭이 멀리 있지 않음이어
 盍反觀乎吾人 어찌 우리 사람들은 되돌아 살피지 않으리요
 俶初稟之無惡 처음 받은 품성은 악함이 없어
 備萬善於一身 온갖 선이 한 몸에 갖추어져 있도다
 彼好惡之相近 저 좋아하고 싫어함이 서로 가깝도다
 懿良心之初發 아름답고 어진 마음이 비로소 움직인다
 苟善養而無害 진실로 선이 길러지면 해침이 없나니

48) 서까래

若火燃而泉達 타는 불길이 샘물에 이름과 같도다
 集衆美而卓爾 여러 아름다움이 모여 우뚝 빼어남은
 類茲山之蔭蔚 이산의 그늘지고 무성함과 닮았도다
 一放心而莫省 그러나 한번 방심하여 살피지 않으면
 紛多岐而投隙 여러 갈래로 나뉘어 틈이 생긴다
 始氣習之內攻 기질과 습관이 안으로부터 공격을 당하면
 竟物誘之外斲 마침내 사물에 유혹되어 외부의 찌핌을 받아
 汨喪眞而沫流 진실을 상하고 말류의 흐름에 빠지게 된다
 泯蒙蒙焉昏惛 몽몽함에 빠지고 혼매함에 물들어
 滅百行而惟逞 온갖 행실이 없어짐을 오로지 편하게 여기니
 何異山之濯濁 산이 민둥산 되는 것과 어찌 다르겠는가
 然本善之難托 그러나 본래의 선으로 되돌리기는 어렵더라도
 是夜氣之所息 이는 밤기운이 자라나는 것과 같으니
 誠防物之來接 정성으로 물욕이 와서 접촉함을 막아내고
 確初心而勿忘 처음의 마음을 확실히 하여 잊지 말 것이다
 敦厥復而洋洋 그 초심의 회복을 두텁게 하고 양양하게 한다면
 盡所爲之焉戕 행한 바의 모든 것이 어찌 상할 수 있으랴
 彼根莖之托地 저 나무뿌리가 땅에 의탁함이어
 猶理義之未嘗亡 의리가 아직 망하지 않음과 같도다
 在所養之有道 기르는 바에는 도가 있으니
 養無有此不長 기름이 없다면 이는 자라나지 않을 것이다
 噫山之蘂日以耗 아, 산의 새움이 날로 줄어들어
 貽吾黨之增傷 사람들의 더한 아픔으로 돌아오는구나

64행의 <우산부>는 매우 뛰어난 작품이다. 우선 그 구성의 긴밀함이 돋보이고, 다음으로 이야기의 처음과 중간 그리고 결말이 선명하며, 마지막 막으로 주제 전달을 위한 비유 등 표현 수법 또한 훌륭하다. 앞서 보인 작품과 달리 행당 서술시의 또 다른 모습이 잘 드러나는데 우산과 나무와의 관계를 사람의 품수 받은 성품과 성선으로 관련지어 흥미롭게 이야기를 구성하였다.

우산의 본래 풍요로운 모습, 그를 바탕으로 나무들이 무성하게 자라나 서까래로 혹은 기둥으로 쓰여지는 관계를 말한 다음, 하지만 잠깐의 방심 放心으로 도성 가까운 곳으로부터 우산이 파괴되고, 그에 따라 나무들이

베어져 결국 앞의 무성함을 이을 조짐이 없어지고 말았다고 했다.

성리학자들은 방심을 경계하기에 구기방심求其放心을 입에 달고 산다. 행당 역시 품수稟受된 성의 선함을 잃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처음 받은 품성은 악함이 없어, 온갖 선이 한 몸에 갖추어져 있도다, 저 좋아하고 싫어함이 서로 가깝도다, 아름답고 어진 마음이 비로소 움직인다, 진실로 선이 길러지면 해침이 없나니, 타는 불길이 샘물에 이름과 같도다, 여러 아름다움이 모이어 우뚝 빼어남은, 이산의 그늘지고 무성함과 닮았도다, 그러나 한번 방심하여 살피지 않으면, 여러 갈래로 나뉘어 틈이 생긴다” 라고 한 것에서 알 수 있다.

행당은 의리의 뿌리가 성선에서 나옴을 말했는데, 사람의 착한 성에 틈이 생기면 착한 기질과 습관이 안으로부터 공격을 받음바 되어, 결국 외부에 유혹되고 꺾힘을 당하게 되어 진실을 상함 곧 의리를 잃음에 이른다고 했다. 사람이 의리를 잃음은 산이 나무를 잃어 민둥산이 되는 것과 같다는 표현은 자못 그 비유가 흥미롭다.

행당은 결국 “정성으로 물욕이 와서 접촉함을 막아내고, 처음의 마음을 확실히 하여 잊지 말 것이다, 그 초심의 회복을 두텁게 하고 양양하게 한다면, 행한 바의 모든 것이 어찌 상할 수 있으랴, 저 나무뿌리가 땅에 의탁함이며, 의리가 아직 망하지 않음과 같도다”라 하여 성선은 땅이요, 의리를 지킴은 땅이 있어 나무가 뿌리를 내리는 것과 같음을 말하였다. 잔잔한 물처럼 담담하게 자신의 주장을 산과 나무의 관계에 비유하여 표현했는데, 탁월한 수사와 차분한 전개, 탄탄한 구성, 유학자다운 주제 등이 잘 조화되어 짙은 감동을 자아내는 명품이다. 이와 같은 작품으로 <인자여사부>, <윤덕천> 등을 들 수 있겠다.

4) 귀거래와 내성 지향

南征賦 남정부

哀時命之不及古人 슬프다, 시절의 명령이 고인에게 미치지 못함이며
 夫何余生之苦晚 어찌 여생이 만년에 이르러 고통스러운가
 燐燐其侵長兮 번쩍번쩍 빛나며 점점 자라남과 같음이며
 日忽忽而不及 세월은 문득 다하는데 따르지 못함이 있네
 進號呼而莫余聞 나아가 부르짖어도 내게는 들림이 없고
 退靜默又莫余知 물러나 고요히 침묵해보지만 나는 알지 못하네
 紛危獨離而異兮 분분한 위태로움과 유별난 헤어짐이 남들과 달랐음이며
 羌衆非之所嗤 아, 온갖 잘못된 비웃음을 받음이며
 雖見缺其亦何傷 비록 이지러짐을 볼지라도 어찌 상심할 것인가
 惜初心之而違 처음 먹은 마음이 어긋남에 안타까워하도다
 昔余之既有知兮 예부터 나는 이미 아는 바가 있었으니
 動必師乎古之人 움직일 땐 반드시 옛 사람을 스승 삼으리라
 喜稷契之生虞 직설 때문에 우 임금의 나왔음에 기쁘고⁴⁹⁾
 幸選湯於有莘 유신씨가 탕왕을 만난 것이 다행이로다
 望夫人其既遠兮 그 사람들을 바라보니 이미 멀도다
 尙遺風而增憤 아직 남긴 바가 있으니 분함이 더 하도다
 味三釜之謨言 세 가마솥의 아름다운 말씀을 음미하여 보니⁵⁰⁾
 知榮養之在訓 영화롭고 기쁨이 있는 훈계임을 알겠도다
 庶所習之有業 모름지기 익힌 바를 업으로 삼을 수 있다면
 答天恩之錫余 천은이 나에게 주는 보답이 있었을 게다
 何白日之莫與 어찌하여 백일하에 나누어주지 않았을까
 吾謀曾十年其猶初 나의 십년 도모함은 처음과 같도다
 歲辛未之首春兮 신미년⁵¹⁾ 초봄의 일이며
 觀國光於上都 서울에서 국광⁵²⁾을 보았다네
 時所美之惟賢 때는 아름다운 어진 사람들 뿐
 果以我爲愚 과감히 말하건대 나는 어리석었지
 君之門以九重兮 임금이 있는 곳의 문은 아홉 겹이고
 又無左右爲之先容 또 좌우에서 선용해주는 이도 없었지⁵³⁾
 爲孤羈而終歲 외로운 나그네로 일생을 마쳤으니

49) 요순시대의 유명한 신하인 직과 설, 직은 농업을 관장했고, 설은 교육을 관장했다.

50) 은나라 탕 임금이 목욕하는 세 발 달린 가마솥에 새겼다는 글.

51) 1571년, 선조 4년, 행당 나이 59세.

52) 임금의 성덕, 혹은 다른 것, 분명치 않음.

53) 선용: 사람을 천거하기 위하여 먼저 명예를 칭찬함.

思不理之續總 생각하니 도리에 맞지 않게 복잡했었네
 既毛檄之莫吾捧兮 이미 모의⁵⁴⁾처럼 내가 벼슬을 받들 수 없음이여
 何獨樂斯之離居 어찌 홀로 즐기자고 이렇게 헤어져 살겠는가
 嫋嫋兮秋風 하늘하늘 가을바람이 부니
 木葉落兮堦除 나뭇잎은 섬돌에 떨어지네
 整回駕余戒行 명예를 단정히 걸고 행장을 단속하여
 排國門而軫懷 도성의 문을 여니 근심이 일어나네
 親朋慰余而求餞 친한 벗이 위로하려고 전송연을 벌이는데
 列前楹之樽壘 기둥 앞에는 술단지와 술잔이 준비되었네
 丈夫不慘於離別 대장부는 이별을 슬퍼하지 않는 법
 間談笑云云 사이사이 담소가 오가고 말이 이어지고
 其方諧澹握手 바야흐로 화락하며 담담하게 손을 맞잡고
 而容與兮 서로를 인정하면서
 間清唱之與偕 사이사이 맑은 노래로 서로 화합하는데
 馬矯首而悲鳴 말이 머리를 들고 슬피 우는도다
 奚又申之以喚 어찌하여 또 거듭 부르는 것일까
 催奮余袂以據鞍兮 거듭 소매를 재촉함에 안장에 몸을 실으니
 腸憑互之如回 오장이 서로 의지하여 뒤틀리는 것 같구나
 怱荒忽之無極兮 섭섭하고 정신의 흐릿함이 끝이 없음이여
 慨余行之遲遲 서운하여 나의 발길 더디기만 하구나
 粵匪吾之舊都 아, 나의 옛 도읍이 아님이여
 胡隱忍而懷斯 어찌 참으면서 이를 생각하리오
 惟文明之樂土兮 유일한 문명의 낙토여
 翕衆美之在茲 못 아름다움이 여기 모여 있도다
 愴守拙而莫售 슬프다, 어리석음을 지키느라 팔리지 못함이여
 謂何顏於反面 무슨 낯으로 부모님을 뵈을까
 望雙關之巍巍 쌍관을 바라보니 높고도 높은데
 涕淫流其若霰 눈물이 주르륵 사락눈처럼 흐르네
 慢不忍乎便辭兮 부질없이 편사⁵⁵⁾를 참지 못하고
 勞余目於西眇 수고롭게 눈길을 서쪽으로 돌렸도다
 既去都而仰睇兮 이미 떠난 도성을 우러러 바라봄이여
 羲輪半碧乎輾轉 태양은 하늘에서 돌고 돌구나
 乘舡舡余泝江 배를 타고 강을 거슬러 오르는데

54) 모격: 毛義奉檄, 후한 사람 모의 고사

55) 교묘하게 꾸며대는 말.

江容淹而不前 배가 깊이 잠기어 나아가지 못하네
 固翻覆之難量 정녕 뒤집힐까 추측하기 어려워
 恐摧抑而廻遭 두려워 마음 졸이며 뱃머리 돌렸네
 賴棘棘而自持兮 가시나무를 의지하려고 그 것을 지닌 채
 夸利涉乎大川 자랑스럽게 대천을 건너서 갔네
 步余馬兮平蕪 무성한 잡초 길을 걷는 나의 말이지만
 按余節兮野田 나의 절개는 전야에서 증험되리라
 灌莽杳而無際兮 우거진 잡목 숲은 끝이 없고
 深林翳翳其依發 깊은 숲속 어둑어둑 의지하듯 펼쳐졌네
 長嘯之慄慄兮 긴 휘파람 소리 추위에 떨리는 듯
 聊以舒吾憂思 애오라지 나의 근심 펼쳐본다
 紛怡儼而若喜兮 여러 가지 알 수 없음에 기쁘기도 하지만
 迷不知余所之 혼미하니 내 갈 바를 모르겠구나
 迺平野之彌邇兮 저 멀리 넓은 들은 눈에 가득 들고
 佳萬英之告斂 수만 송이 예쁜 꽃은 보고하듯 모여 있다
 然稊莠之尙根兮 하지만 가라지풀들은 아직도 뿌리가 남아 있고
 曾又見瘁於旱焰慮 일찍이 불별 가뭄의 병폐도 보았으니
 小人之失依兮 소인들의 의지할 바를 잃음이어
 哀腹糲之亦歎 슬프다, 배를 굶주리고 흉년까지 뚝이여
 厚聖恩之益下兮 두터운 성은이어 더욱 아래로 내려서
 省應助夫不瞻 살피고 마땅히 도움 준다면 넉넉지 않으랴
 苛威政之多虎兮 가혹하고 위협적인 정치가 호랑이 보다 무서움이어
 懼不奪則不饜 빼앗지 않고선 배부르지 못한다니 두렵도다
 心不怡之長久兮 마음이 편안하지 않음이 오래됨이어
 憂與憂其重仍 근심이 근심을 거듭거듭 낳는구나
 曜靈晼晚其易陰 해가 지면 어둠이 오는 법⁵⁶⁾
 怨西岑之峻嶒 서쪽 산의 첩첩함이 원망스럽네
 戒夕露之濕衣兮 저녁 이슬에 옷이 젖을까 조심하지만
 況瘦駘之凌競 더구나 늙고 지친 말이 불쌍하여라
 聊可宿於民舍兮 잠깐 민가에 들러 자고 가려는데
 目耿耿其不瞑 눈이 충충하여 잠들 수 없네
 望孟夏之短夜兮 초여름의 짧은 밤을 바라보니
 何若歲其晦明 어찌하여 세월은 어둡고 밝음이 있는가

56) 요령: 뜨는 해, 원만: 지는 해

獨申朝而反側兮 홀로 밤새도록 뒤척이는데
 哀蟋蟀之霄征 슬피 울던 귀뚜라미 하늘로 갔는가
 忽僕夫之告戒兮 갑자기 종 녀석이 깨웠는데
 尙晨鷄之無聲 아직 닭은 해치지 않았네
 忘脩路之夷阻兮 먼 길의 평탄함과 험함을 잊었는데
 南指雲與列星 구름과 못별들 남쪽으로 흐르네
 霜露慘淒而交下兮 서리와 이슬이 처참하게 섞여 내리니
 占堅冰之將凝 아마도 단단한 얼음으로 굳어지겠지
 寒風聿其永至兮 찬바람이 때맞춰 불어 닥칠 것이니
 歎陰氣之憑陵 음침한 기운이 침범함을 탄식하노라
 朝余行而夕至兮 아침에 떠나야 저녁에 이를 길
 南路莫其羌永 남쪽을 향한 길 멀기도 하여라
 願逕逝之不得兮 지름길을 원하지만 어쩔 수 없어
 魂先歸而覲省 혼이 먼저 돌아가 부모님을 뵈옵네
 顧隻行之無友兮 돌아봐도 홀로 가는 길에 벗 하나 없어
 形顧影而相弔 몸이 그림자를 보고 서로 위로 하도다
 信余性之樂水兮 나의 성품이 물을 좋아함을 믿기에
 每臨溪而瀉抱 물가에 이르면 쏟아내고 움켜쥐곤 해본다네
 溪流清瑩而徹底 흐르는 시냇물 맑고 투명하여 바닥까지 보이니
 庶可律乎吾心轉 바라건대 내 마음의 법도로 삼을만하네
 盡原阡之曲直 언덕이란 모두 굽기도 하고 곧기도 한데
 重見太嶺之嶽崱 거듭 태산의 준령이 높음을 보겠노라
 一步九折而縈迴兮 한 걸음에 아홉 번 꺾이고 굽어 도니
 直與太行乎爭危 곧은 길 큰 길 다투듯 위험하네
 咨玄黃之力單兮 아, 말은 병들어 힘은 다 했는데
 又重之以瘡痍 또 거듭 연장에 찢리는 상처를 당했네
 噫昔妣氏之克勤 아, 옛날의 사씨⁵⁷⁾는 부지런하고 검소하여
 足忘胝於乘櫟 족히 부르툼도 잊고 썰매를 탔다는데
 矧我馬之孔瘡兮 하물며 나의 말이 크게 지쳤으니
 吾何戀然乎載馳 내 어찌 무심히 타고 달리랴
 着靑鞋而捫壁兮 푸른 가죽신 신고 벽을 어루만지듯이
 憩石根而支頤 돌 뿌리에 앉아 턱을 괴고 쉬었네
 歌行路之方難兮 길을 가며 노래하기는 정말 어려워

57) 중국의 우 임금

仰面看乎天宇 얼굴을 들고서는 하늘을 보았네
 疾靄雲之蔽明兮 검은 구름이 빠르게 다가와 밝은 빛을 가리니
 寔昔人之以愁 이를 옛 사람들 근심했었네
 苦步徙倚而逡巡兮 괴로이 발걸음 오락가락 머뭇거리면서
 付一慨於千古 한 번의 강개함을 역사에 부쳤도다
 亂錦江之瀾漫兮 어지러이 금강의 물이 가득찼는데
 兀中流余孤泳 위태로이 물가운데를 혼자 헤엄쳤네
 俛百丈之淵深兮 굽어보니 백 장이나 깊은 물이요
 又畏夫短狐之伺影 또 단호⁵⁸⁾가 내 그림자를 노려볼까 두려웠었네
 夕余邸乎空館兮 저녁에 집에 오니 공관처럼 텅 비웠고
 人烟眇其蕭疎 밥 짓는 연기 아득히 쓸쓸하였네
 在上世之淳尨兮 우리 선대 때는 순박하고 우람했는데
 扉不關而洞虛 사립문 열린 채로 마을이 비웠네
 視時世之不然兮 시절이 예와 같지 않음을 보니
 命鍵鎖其固如神 명운의 자물쇠가 잠김이 귀신처럼 단단하다
 悸氣憤交於胸中 두려움에 두근거리는 마음과 분함이 가슴에 교차하니
 喟向誰而畢攄 아, 누구를 향하여 모두 펼칠까
 夜叅半而肅駕 밤이 깊으니 수레도 엄숙히
 履畏途之攙巖 높은 바위 위를 가듯 두려운 걸음이다
 苟亟寧之是圖兮 진실로 편안함을 위하여 이를 피함이어
 夫孰罷矜乎難堪 무릇 누구라도 지치고 어리석으면 감당하기 어렵다네
 心長懸於桑梓兮 마음은 언제나 상재⁵⁹⁾에 달려있기에
 忽忘夫此身之在於馬上也 문득 이 몸이 말 위에 있음을 잊었네
 逝莫息其詎止兮 가면서 쉬지 않으면 어찌 멈추라마는
 固不敢或違乎 진실로 감히 황급히 서둘지는 않으리라
 自放曼余眸兮 스스로 자유롭게 눈을 돌려봄이어
 流觀白雲靄靄兮飛止 흰 구름이 뭉게뭉게 흐르다가 멈춤을 보고
 點露鬢兮莽蒼 방울방울 상투처럼 푸른 풀잎에 맺힌 이슬
 欣故山之伊邇 옛 놀던 산이 더욱 가까운 듯 기쁘도다
 回首長安之風日兮 머리를 돌려 서울의 모습을 바라보니
 迴復迴兮幾里 멀고 또 멀구나 몇 리나 될까
 行行兮重行 가고 또 가면
 北極兮南陬 북쪽 끝도 남쪽 귀퉁이 되리니

58) 물속의 독벌레

59) 고향

亂曰已矣 어려운 글귀에서 말한 것도 이뿐이라⁶⁰⁾
 天長地遠歲不留 하늘은 넓고 땅은 멀지만 세월이 멈추지 않으니
 過中無成 지나는 가운데 이룸이 없으면
 祗挈憂欲 다만 근심이 되나니
 釋階梯登九闕 (근심) 풀기 위해 사다리 타고 궁궐에 오른다
 全生實多死已緩 온 생애 실로 많은 일들, 죽어지면 편안하리
 歸來舊土足自娛 옛 땅으로 돌아와 만족하며 즐기니
 高堂歡合兄弟俱 부모님이 기뻐하시고 형제가 함께 하네
 明昏奉省不違時 혼정신성을 밝게 하고 때 아니 어기니
 和樂且湛亦可期 화락하고 즐거움을 기약할 수 있으리라
 獲我所求夫何思 내가 구하는 바를 얻었으니 다른 무엇 생각하리

<남정부>는 172행의 긴 시다. 행당이 만년에 흠모하던 도연명의 <귀거래사>를 연상케 하는데 연보에 따르면 그는 64세 때인 1575년에 향리로 돌아와 임천에 거닐면서 유유자적하였다.⁶¹⁾ 이 작품은 연보 등 여러 사실을 살펴볼 때 행당 본인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작품은 아닌 듯하다.

특히 신미년 이라고 말한 해는 그가 60세 되던 1570년으로 예빈시정과 종부시정에 임명되었고 그 다음 해 병환으로 잠시 백련서사에 머물면서 행당杏堂이라 자호自號하고 해빈옹海濱翁 윤항, 졸재拙齋 윤행 등 형들과 정의를 관혼하였다. 그 후 다시 벼슬에 나아가 사헌부 장령, 홍문관 수찬, 우부승지, 좌부승지 등의 벼슬을 하였는바, “과감히 말하건대 나는 어리석었지, 임금이 있는 곳의 문은 아홉 겹이고, 또 좌우에서 선용해주는 이도 없었지, 외로운 나그네로 일생을 마쳤으니, 생각하니 도리에 맞지 않게 복잡했었네”와는 앞뒤 관계가 맞질 않다.

<남정부>는 행당이 평소 바라던 귀거래의 염원을 노래한 허구적 이야기로서 그 수려한 문장력이 주목된다. 글을 밀고 나아가는 힘이 잔잔하면서도 유려하여 읽는 이의 호흡을 사로잡는다. ㉠지르고, ㉡풀며, ㉢펼쳐

60) 「초사」의 내용을 인용한 것이, 문장이 난해하다는 뜻인 듯.

61) 앞의 유고, 529쪽.

서, ㊸맺는 문장력은 행당의 글쓰기 방식임은 앞의 다른 부에서도 익히 보아온 바다.

가령 “도성의 문을 여니 근심이 일어나네-지르고-친한 벗이 위로하려고 전송연을 벌이는데-풀고-기둥 앞에는 술단지와 술잔이 준비되었네-펼치고-대장부는 이별을 슬퍼하지 않는 법-맺고/사이사이 담소가 오가고 말이 이어지고-지르고-바야흐로 화락하며 담담하게 손을 맞잡고-풀고-서로를 인정하면서-펼치고-사이사이 맑은 노래로 서로 화합하는데-펼치고-말이 머리를 들고 슬피 우는 도다-맺고/어찌하여 또 거둬 부르는 것일까-지르고-거둬 소매를 재촉함에 안장에 몸을 실으니-풀고-오장이 서로 의지하여 뒤틀리는 것 같구나-펼치고-섭섭하고 정신의 흐릿함이 끝이 없음이여-펼치고-서운하여 나의 발길 더디기만 하구나-맺고/ 등이 그 것이다.

다음으로 주목되는 것은 행당 시의 서정성이다. 부 문학이 서술을 주된 문체로 전개되는 서술시라 할지라도 그 것이 결국 서정 갈래임을 감안할 때, 이는 함축적 또는 내포적 서정 시⁶²⁾라기 보다는 풀이적 또는 서술적 서정시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다음에서 확인해 보자. “초여름의 짧은 밤을 바라보니, 어찌하여 세월은 어둡고 밝음이 있는가, 홀로 밤새도록 뒤척이는데, 슬피 울던 귀뚜라미 하늘로 갔는가, 갑자기 종 녀석이 깨웠는데, 아직 닭은 해치지 않았네, 먼 길의 평탄함과 험함을 잊었는데, 구름과 못별들 남쪽으로 흐르네, 서리와 이슬이 처참하게 섞여 내리니, 아마도 단단한 얼음으로 굳어지겠지, 찬바람이 때맞춰 불어 닥칠 것이니, 음침한 기운이 침범함을 탄식하노라”에서 보듯 마치 관소리의 계면조 가락을 읊는 듯 시적 화자의 시정詩情을 펼쳐 보임은 독자의 가슴을 사로잡고도 남는다. 이러한 행당 시의 서정성은 고려시대부터 백련사 등지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창작, 향유되었던 선시禪詩적 전통과 유관할 것으로 사료 되는데, 행당은 이를 나름의 서정성으로 계승, 발전시켰는데, 이는 바로 뒤 세대인 해암 김응정(1527-1630), 청련 이후백(1520-1578), 한벽당 광기수

62) 김준오가 짧은「시경」시를 서술시라고 정의했는데 이는 서구적 개념의 서사시와는 다른 함축적 서정의 서술시를 말한다. 김준오, 앞의 글, 31쪽.

(1549-1616), 죽록 윤희관(1745-1823), 아암 혜장(1772-1811), 경회 김영근(1865-1934) 등에게로 이어지다가, 근. 현대에 이르러 영랑과 현 구 등의 남도색 짙은 서정시의 원류가 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에서는 행당이 바랐던 귀거래의 염원을 단적으로 만날 수 있다. “마음은 언제나 상재에 달려있기에, 문득 이 몸이 말 위에 있음을 잊었네, 가면서 쉬지 않으면 어찌 멈추라마는, 진실로 감히 황급히 서둘지는 않으리라, 스스로 자유롭게 눈을 돌려봄이여, 흰 구름이 몽게몽게 흐르다가 멈춤을 보고, 방울방울 상투처럼 푸른 풀잎에 맺힌 이슬, 옛 놀던 산이 더욱 가까운 듯 기쁘도다, 머리를 돌려 서울의 모습을 바라보니, 멀고 또 멀구나 몇 리나 될까(중략) 옛 땅으로 돌아와 만족하며 즐기니, 부모님이 기뻐하시고 형제가 함께 하네, 혼정신성을 밝게 하고 때 아니 여기니, 화락하고 즐거움을 기약할 수 있으리라, 내가 구하는 바를 얻었으니 다른 무엇 생각하리”가 그 것이다.

마음은 언제나 상재 곧 고향에 달려 있다고 하여 벼슬에 있으면서도 귀거래를 향한 마음을 떨쳐낼 수 없었던 조선시대 유학자의 일반적 지향을 말한 뒤, 옛 땅으로 귀거래를 실천하여서는 만족하며, 즐긴다. 부모 형제 모두가 기뻐하고, 혼정신성을 때 맞춰하니, 자식은 제 할 일을 하여 즐겁고, 부모는 효도를 받아 기쁘다, 이것이 바로 내가 구하는 바다, 저 벼슬에서의 규모과관跬步波瀾과는 멀어도 아주 멀다면서 귀거래의 기쁨을 한껏 노래했다.

결국 행당은 귀거래를 통하여 자식된 도리를 다 하고 형제의 사랑을 실천하며 내성內省에 힘써 완성된 인격을 바랐었다. “아침에 떠나야 저녁에 이를 길, 남쪽을 향한 길 멀기도 하여라, 지름길을 원하지만 어쩔 수 없어, 혼이 먼저 돌아가 부모님을 뵈옵네, 돌아봐도 홀로 가는 길에 벗 하나 없어, 몸이 그림자를 보고 서로 위로 하도다, 나의 성품이 물을 좋아함을 믿기에, 물가에 이르면 쏟아내고 움켜쥐곤 해본다네, 흐르는 시냇물 맑고 투명하여 바닥까지 보이니, 바라건대 내 마음의 법도로 삼을만하네” 귀거래의 실천이 쉽지 않음을 먼저 말한 뒤, 이어 투명하여 바닥까지 보

이는 물을 법도法度로 삼고자 한 것이 그 것이다. 지자요수知者樂水의 지혜 터득을 넘어 유학자로서의 완성된 인격을 향한 자기 수양, 곧 내성을 향한 유학자의 정신 지향이 옷깃을 여미게 한다. 이와 같은 내용의 작품으로 <차감사불우부>를 들 수 있다.

5) 군자도와 수신 지향

黔之驢賦 김지려부

士有謝外事於形骸兮 선비는 몸뚱이 같은 바깥 치장은 떨쳐냄이 있어야 한다

獨冥觀而默會 혼자 조용히 보고서 묵묵히 깨닫기도 해야한다

喜推此而知彼兮 이것을 미루어 저 것을 앎을 기뻐함이어

亦因小而喻大 또한 작은 것으로 큰 것을 깨우치기도 한다

對柳子於几案 유자후의 글을 책상에 놓고 대하노니

何詞說之瓌怪 사설의 희귀하고 뛰어난이여

曰黔江之有驢兮 말하기를 검강에 나귀가 있었는데

始好事之船載 처음에 호사가 배에 실었다네

既無用於人兮 이미 사람에게는 쓸모가 없어서

空自放於山阿與水際 아무렇게나 산기슭과 물가에 버렸다네

形侏而聲宏兮 모습이 크고 소리가 우렁차며

異尋常之毛毳 털 또한 보통이 아니어서

雖猛虎亦以爲神兮 비록 사나운 호랑이일지라도 신처럼 여겨

初絕意於騰噬 처음부터 뛰어오르거나 깨물 생각 안 했었네

稍稍以近試之兮 조금씩 가까이 가서 시험해 보니

技不過於怒踞 기술이라야 고작 성내고 발길질하는 것 뿐이었네

跳跟偃冒無所不至 마구 뛰다가 넘어진 것을 무릅쓰고 이리저리 뛰어다니

며

風若驚兮電若掣 바람에도 놀라곤 하니 번개처럼 달려들어 제압하였네

爪牙之莫與敵兮 발톱과 어금니는 상대와 겨룰 수가 없어서

卒頽然以斃也 마침내 벌렁 넘어져 죽고 말았네

此於一物而或然兮 이 한 사물에 관한 이야기가 혹 그럴 듯해도

理無乎不在也 이치는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니도다

盖記於當時之見聞 대개 당시에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한 것이지만
 猶可以起警於千載 되레 천년을 두고도 경계를 일으킬만한 것이다
 人固有但飾其外兮 사람은 본래 그 바깥을 꾸미고자 하여
 不務修於內也 그 안을 닦는데 힘쓰지 않는다
 儼形貌之曼碩 외모를 엄정하게 하여 크게 드러내고
 冒赫業於先代 선대의 뛰어난 업적을 꾸며댄다
 褒衣以博帶兮 큰 옷을 입고 넓은 띠를 두름이여
 大言以揚喙 큰 소리로 주둥이를 드러낸다
 幸而居無事之時 다행히 무사한 때를 살면서
 或循道而不廢 혹 도리를 좇아 폐하여 지지 않더라도
 而卒遇夫虎傷兮 마침내 호랑이에게 상처를 당하게 되어
 鮮不膽裂而頭碎 쓸개가 찢기고 머리가 부수어짐을 면하기 어렵도다
 竭技力而莫之禦 기술과 힘이 다하면 막아내지 못하고
 渾同歸於敗也 완전히 패배의 길로 돌아가고 말 것이니
 豈不於此而一噫兮 어찌 여기서 탄식이 한 번 나오지 않으랴
 盖亦爲之誠也 이 또한 경계로 삼아야 한다
 所貴乎君子之道 귀한 것은 군자의 도이니
 誠積中而發外 정성스럽게 안에다 쌓으면 밖으로 나타난다
 惟厥美之日充兮 오로지 아름다운 덕이 날로 증만해지면
 粹然而盡於背 수연함이 얼굴과 등 뒤에 나타날 것이다
 其威也 그 위엄이여
 如秋霜之可畏 가을의 서리 같이 두려움이 있고
 其仁也 그 어짐이여
 如春日之可愛 봄날의 햇살같이 사랑스럽도다
 夷險乎一節兮 쉽고 어려움이 이 한마디에 있으니
 外患不爲能之害也 외환이 해를 입히지 못할 것이다
 噫無德以將之兮 아, 덕이 없으면서 나아가려고 하고
 又無能以濟也 또 능력이 없으면서 건너려고 하도다
 衣冠面目之人類兮 의관을 갖춘 사람들의 거짓된 모습이라니
 苟以欺於世也 진실로 세상을 속이는 것이로다
 鼎猶折足負而且乘 술은 다라가 부러져도 음식을 담고 실을 수 있으나
 夫孰救於顛沛 엎어지고 넘어진 것을 그 누가 구해줄 수 있으랴
 而此事誠可爲之規兮 이 일은 참으로 규범으로 삼을 만하기에
 願無忘而書諸帶 잊지 않고자 띠에다 쓰노라

56행의 <검지려부>는 당나라 유종원이 쓴 <삼계三戒>의 내용을 인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도구로 삼았다. 앞의 4구는 서론격이다. “선비는 몸뚱이 같은 바깥 치장은 떨쳐냄이 있어야 한다/ 혼자 조용히 보고서 묵묵히 깨닫기도 해야 한다/ 이것을 미루어 저 것을 앎을 기뻐함이어/ 또한 작은 것으로 큰 것을 깨우치기도 한다” 하여 서론으로 삼은 뒤 <삼계>의 내용을 소개한 것으로 본론에 들었다.

검강이란 곳에 사는 당나귀는 모습이 크고 소리가 우렁차며 털 모양이 범상치 않아 호랑이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 동물이지만 이미 사람들은 그가 별 것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말로 처음을 열었다. 호랑이가 나중에 안 사실은 “기술이라야 고작 성내고 발길질하는 것 뿐이었다.” 그래서 “번개처럼 달려들어 제압하였네”처럼 호랑이가 공격했지만 “발톱과 어금니는 상대와 겨룰 수가 없어서, 마침내 벌렁 넘어져 죽고 말았네”처럼 허무하게 그만 죽어버렸다는 이야기다.

행당은 이 이야기를 소개한 뒤 “대개 당시에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한 것이지만, 되레 천년을 두고도 경계를 일으킬만한 것이다, 사람은 본래 그 바깥을 꾸미고자 하여, 그 안을 닦는데 힘쓰지 않는다, 외모를 엄청나게 하여 크게 드러내고, 선대의 뛰어난 업적을 꾸며낸다, 큰 옷을 입고 넓은 띠를 두름이어, 큰 소리로 주둥이를 드러낸다” 라 하여 사람들이 실상과는 달리 바깥만 꾸미기에 힘쓰고, 안을 닦는데 소홀함을 경계하였다.

그러면서 “ 귀한 것은 군자의 도이니, 정성스럽게 안에다 쌓으면 밖으로 나타난다, 오로지 아름다운 덕이 날로 충만해지면, 수연함이 얼굴과 등 뒤에 나타날 것이다, 그 위엄이어, 가을의 서리 같이 두려움이 있고, 그 어짐이어, 봄날의 햇살같이 사랑스럽도다”라 하여 군자의 도가 귀함을 강조한 뒤 정성스럽게 안으로 쌓아둔면 자연스럽게 밖으로 드러나서 그 위엄은 가을날의 서리 같고, 그 어짐은 봄날의 햇살 같이 사랑스럽다며 군자 도의 효험을 말했다.

그리고 “ 아, 덕이 없으면서 나아가려고 하고, 또 능력이 없으면서 건너려고 하도다, 의관을 갖춘 사람들의 거짓된 모습이라니, 진실로 세상을

속이는 것이로다”라 하여 덕과 능력이 없으면서 벼슬에 나아가 사람을 다 스리려고 하는 사람들, 이른바 그럴싸하게 의관만 갖춘 사람들을 꼬집어 세상을 속이는 것이라며 일침을 놓는 것으로 결론을 삼았다. 글의 앞에서는 묵묵히 닦는 수신의 도를, 뒤에서는 덕과 능력을 갖춘 군자의 도를 수미상관으로 갖추어 말했다. 이와 같은 작품으로 <대호부>, <목무전우부>, <항해부> 등을 들 수 있겠다.

6. 논의 및 결론

필자는 이상에서와 같이 행당의 생평과 20편에 달하는 부문학을 서술 시적 맥락에서 그 미학을 살펴보았다. 행당의 학문적 뿌리는 두 갈래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나는 점필재 김종직의 뒤를 호남에서 이었던 금남 최부의 고제가 바로 행당의 부친인 어초은 윤효정이라는 점에서 영남학의 영향이 그것이다. 만형 글정 윤구 역시 아버지의 영향을 받았는데 행당은 형으로부터 가학을 전수받았다. 다른 하나는 행당 자신이 안동부사 시절 퇴계와의 인연을 돈독히 하면서 친자親炙를 받은 것인데 이 또한 영남학의 영향이라 할 수 있다. 다만 호남인 행당이 호남에서 발화하고 결실한 호남학과 어느 정도의 긴밀한 관련을 맺었는지는 앞으로 더 살펴 봐야 할 것 같다.

다만 행당이 호남학에 끼친 직. 간접적인 영향은 높이 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강중, 흠중, 단중 등 세 아들과 생질 풍암 문위세, 문위세의 처남인 의병장 죽천 박광전 등을 퇴계 문하에 들게 하여 영남학의 진수를 통하여 호남학을 풍요롭게 하는데 기여한 점이 그 것이다. 또한 1538년 무술년 문과 별시에 동방한 미암 유희춘의 저서「속몽구분주續蒙求分註」의 초고를 행당이 퇴계에게 보내어 질정을 구하는 등 두 사람을 이어주었다는 점 역시 행당의 공로라 하겠다. 뿐만 아니라 퇴계의 제자들이 중심을

잡고 있던 동인東人 대열에 호남인 광산 이씨 이중호와 그의 아들 동암 이발, 남계 이길 등이 참여한 점은 아마도 이중호가 행당의 맏형인 굴정 윤구의 사위라는 인연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행당은 부문학 이외에도 유학자로서 몇 편의 시와 문을 남겼으며 <전라도도사시일록>과 <은대일록> 등의 글을 남겼다. 전자는 전라도 도사 시절의 일기인데 중종 13년(1511) 7월 13일부터 10월 19일까지의 기록이며, 후자는 62세 때인 1573년 4월 18일 승정원 동부승지로 있을 당시에 은대 곧 승정원에서 쓴 일록으로 기록하기를 좋아하고 글쓰기에 관심이 많았던 행당의 면모를 살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흥미로운 여러 사건이 파노라마처럼 전개되어 읽는 맛이 진진하다.

한편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행당은 20편의 부문학을 창작하여 호남 서술시단의 전통을 계승, 발전시킨 공로를 남겼다. 필자는 그의 서술시 미학을 1. 역사의 전범과 교훈, 2. 종경宗經 정신 함양의 지향, 3. 성선과 의리 중시, 4. 귀거래와 내성 지향, 5. 군자도와 수신 지향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먼저, 역사적 사실을 말한 <오국성부> 등에서는 다섯 나라의 흥망은 결국 내수內修의 유무에 달려 있음을 강조하였는데, 내수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공물을 바쳐도 갇힌 사람을 구할 수 없고, 그런 자에게는 하늘의 도움도 없다는 준엄한 교훈을 말했다. 이어 군비軍備를 극진히 하여 외침에 대비해야 함도 강조했다. 행당은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 15년 전에 (1577) 세상을 떴지만 이미 유비무환의 국방을 말하였다. 그는 이러한 주장을 하면서도 일방적 선언의 주장이라기 보다는, 설득적인 서술의 힘으로 자신의 뜻을 차분히 펼쳐 보였는데 이는 행당 특유의 독특한 글쓰기 방식이라 하겠다. 이와 같이 역사적인 사실을 전범으로 내세워 교훈을 삼고자 창작한 것으로 <엄격부>, <항해부>, <인부>, <오중부차부>, <축망부> 등이 있다.

두 번째로 종경 정신 함양의 지향은 <이남부> 등을 통하여 보여주었는데 결국 행당은 나라를 평화롭게 다스리고자 하면 <이남> 같은 시를 배

위야함을 강조하였다. 시를 활용한 정치와 경영 등 오늘날 유행하는 인문학의 역할을 미리서 말해놓은 듯하다. 여기에서 우리는 행당의 서술시 글 쓰기 방식은 ㉠무엇을 원한다면, ㉡ 무엇을 해야 할 것이다, ㉢ 누가 무엇을 할 때, ㉣ 무엇을 하였으니, ㉤ 무엇 할지라도, ㉥ 무엇해야 한다는 식의 비교적 긴 호흡의 연장체 서술을 하고 있음이 주목된다. 행당은 유학 경전의 가르침을 모든 것의 중심으로 여기는 이른바 종경宗經 정신에 투철한 유학자였으며, <이남부> 같은 서술시를 통하여선 자신의 그런 정신을 다른 사람이 함양하기를 바랐다. 이러한 지향을 지닌 작품으로는 <관저>, <척호부> 등을 들 수 있겠다.

세 번째로 <우산부> 등은 성선과 의리를 중시한 것이다. 행당은 의리의 뿌리가 성선性善에서 나옴을 말하고, 사람의 착한 성에 틈이 생기면 착한 기질과 습관이 안으로부터 공격을 받은바 되어, 결국 외부에 유혹되고 찍힘을 당하게 되며 진실을 상함 곧 의리를 잃음에 이른다고 했다. 사람이 의리를 잃음은 산이 나무를 잃어 민둥산이 되는 것과 같다는 표현은 자못 그 비유가 흥미롭다.

행당은 결국 성선은 땅이요, 의리를 지키는 땅이 있어 나무가 뿌리를 내리는 것과 같은 것임을 말하였다. 잔잔한 물처럼 담담하게 자신의 주장을 산과 나무의 관계에 비유하여 표현했는데, 탁월한 수사와 차분한 전개, 글의 탄탄한 구성, 유학자다운 주제 등이 잘 조화되어 짙은 감동을 자아내는 명품이다. 이 작품은 그 구성의 긴밀함이 돋보이고, 이야기의 처음과 중간 그리고 결말이 선명하며, 주제 전달을 위한 비유 등 표현 수법 또한 훌륭하다. 앞서 보인 작품과 달리 행당 서술시의 또 다른 모습이 잘 드러나는데, 우산과 나무와의 관계를 사람의 품수 받은 성품과 성선으로 관련지어 흥미롭게 이야기를 구성하여 주제 전달의 효과를 극대화하였다. 이와 같은 작품으로 <인자여사부>, <운덕천> 등을 들 수 있겠다.

네 번째로 귀거래와 내성 지향은 <남정부> 등에 잘 나타나 있다. <남정부>는 행당이 평소 바라던 귀거래의 염원을 노래한 허구적 구성으로서 그 수려한 문장력이 주목된다. 글을 밀고 나아가는 힘이 잔잔하면서도 유

려하여 읽는 이의 호흡을 사로잡는다. ㉠지르고, ㉡풀며, ㉢펼쳐서, ㉣맺는 문장력은 행당의 글쓰기 방식임은 앞의 다른 부에서도 익히 보아온 바다.

다음으로 주목되는 것은 행당 시의 서정성이다. 부 문학이 서술을 주된 문체로 전개되는 서술시라 할지라도 그 것이 결국 서정 갈래임을 감안할 때, 이는 함축적 또는 내포적 서정 시라기 보다는 풀이적 또는 서술적 서정시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인데 여기서는 그런 점을 여실히 확인할 수 있다. 행당 시의 서정성은 고려 때부터 강진의 백련사 등지를 중심으로 활발히 창작되었던 선시禪詩와 관련된 전통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거니와, 이는 바로 뒤 세대인 해암 김응정, 청련 이후백, 한벽당 광기수, 죽록 윤희관, 아암 혜장, 경회 김영근 등으로 계승, 발전되다가 근. 현대 시문학에서 영랑과 현구 등이 거둔 남도의 토속적 서정성을 낳게 한 것과 유관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행당 시의 서정성은 호남의 다른 서술시 인과는 비교되는 점이다.

또한 행당은 마음은 언제나 상재 곧 고향에 달려 있다고 하여 벼슬에 있으면서도 귀거래를 향한 마음을 떨쳐낼 수 없었던 조선시대 유학자의 일반적 지향을 말한 뒤, 옛 땅으로 귀거래를 실천하여서는 만족하며, 즐긴다. 부모 형제 모두가 기뻐하고, 혼정신성을 때 맞춰하니, 자식은 제 할 일을 하여 즐겁고, 부모는 효도를 받아 기쁘다, 이것이 바로 내가 구하는 바다 등 저 벼슬에서의 규모과란跬步波瀾과는 멀어도 아주 멀다면서 귀거래의 기쁨을 노래했으며, 귀거래를 통하여 자식된 도리를 다 하고 형제의 사랑을 실천하며 내성內省에 힘쓰는 완성된 인격을 바랐었다.

다섯 번째 <검지려부> 등에서는 군자도와 수신 지향을 보였는바 행당은 이 이야기를 소개한 뒤 사람들이 실상과는 달리 바깥만 꾸미기에 힘쓰고, 안을 닦는데 소홀함을 경계하였다. 그러면서 “ 귀한 것은 군자의 도이니, 정성스럽게 안에다 쌓으면 밖으로 나타난다, 오로지 아름다운 덕이 날로 충만해지면, 수연함이 얼굴과 등 뒤에 나타날 것이다, 그 위엄이여, 가을의 서리 같이 두려움이 있고, 그 어짐이여, 봄날의 햇살같이 사랑스럽도

다”라 하여 군자의 도가 귀함을 강조한 뒤, 정성스럽게 안으로 쌓아둔면 자연스럽게 밖으로 드러나서 그 위엄은 가을날의 서리 같고, 그 어짐은 봄날의 햇살 같이 사랑스럽다며 군자 도의 효험을 말했다.

끝으로 덕과 능력이 없으면서 벼슬에 나아가 사람을 다스리려고 하는 사람들, 이른바 그럴싸하게 의관만 갖춘 사람들을 꼬집어 세상을 속이는 것이라며 일침을 놓는 것으로 결론을 삼았다. 글의 앞에서는 묵묵히 닦는 수신(修身)의 도를, 뒤에서는 덕과 능력을 갖춘 군자의 도를 수미상관(首尾相貫)으로 갖추어 말하는 등 글쓰기의 고수다운 면모를 보였다. 그가 비록 현실 정치의 모순과 불합리 등에 큰 소리로 개혁을 외치거나 비판하지는 않았어도, 그 나름대로의 방식인 점잖게 에둘러 말하거나 다른 것에 빗대어 말한 수법도 이전의 호남 서술시인들과는 다른 값진 성과라 생각된다. 이와 같은 작품으로 <대호부>, <목무전우부>, <항해부> 등을 들 수 있겠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행당의 서술시는 놀재, 석천, 송재의 서술시 전통을 이었으면서도 잔잔하게 물 흐르듯 유려한 문장력, 가슴을 파고드는 계면조 같은 애련하고 짙한 서정성, 제품에 들어맞는 옷 같은 비유 등이 눈에 띈다. 행당의 서술시는 각종 수사를 통한 에둘러 말하기, 긴 호흡의 연장체적 서술 등 그만의 글쓰기 방식으로 그 나름의 독특한 미학 세계를 이루었다는 의의와 함께, 생질 풍암과 윤씨 집안의 외손인 다산 등이 호남 서술시의 전통을 계승, 발전할 수 있도록 교두보 역할을 했다는 의의도 함께 지닌다 하겠다. 앞으로 행당과 호남학에 대한 영향의 수수관계는 물론 퇴계, 미암, 풍암, 죽천, 다산 등과의 비교 연구 등 여러 후고를 기약한다.

참고문헌

- 행당선생추모회, 『행당선생유고』, 대보사, 1997.
- 한국고시가문학회, 『고시가연구』, 제6집(1999), 제11집(2003)
- 孔穎達, <詩大序疏>, 『毛詩正義』(권 일)
- 劉勰, <詮賦>, 『文心雕龍』
- 朱熹, <葛覃>, 『詩經』
- 王世貞·徐師曾, 『文體明辯』
- 「명종실록」, 15년(1560)
- 김언중, 「퇴계와 행당의 교환과 그 역사적 의의」, 행당윤복선생탄신500
주년기념사업회, 『행당 윤복선생 유고 백서』, 을지출판공사,
2013.
- 「선조실록」, 7년(1574)
- 목포대학교, 『목포대학교박물관 20주년 기념논총』, 2003.
- 줄고, 「송재 나세찬의 부문학 세계」, 박준규 · 최한선, 『송재 나세찬』,
태학사, 2000.
- 김준오, 「서술시의 서사학」, 현대시학회편, 『한국서술시의 시학』, 태학
사, 1998.
- 성백효, 『시경집전』상, 전통문화연구회, 1993.
- 임형택, 『이조시대 서사시』2, 창작과 비평사, 2013
- 우리말글학회, 『우리말글』, 제8집, 1999.

투고일 : 2014년 7월 15일, 심사 : 7월 17일~8월 8일, 게재확정 : 8월 8일

<Abstract>

Haengdang Yun Bok and Aesthetics of Narrative Poems

Choi, Han-sun

This thesis aims to keep track of the life of Haengdang Yun Bok(尹復) and the aesthetics of his narrative poems. He was born as a son of Choi Bu(崔溥) who was a disciple of Yun Hyojeong, and learned scholastic tradition of his family from his elder brother. Yun Hyojeong(尹孝貞) played a great role to hand down Yeongnam Study to Honam province. He entered a government service at the age of 27 and experienced various jobs in and out of court. Especially, when he took office as a Busa in Andong, he and his family members associated with the great scholar Toegye(退溪), which contributed to Honam Study.

Haengdang's poems succeed to the tradition of Honam narrative poem and became a model for the next generation. The theme of his poems focuses on the standardized model and moral discipline, respect for the classics, emphasis on the goodness and righteousness, respect for doing homecoming and introspection and admiration for the virtue and self-cultivation. His narrative poem displays mainly his opinion with narrations such as (1) if we do certain things (2) we must do what (3) when somebody do something (4) while we do something (5) even if we do something (6) we must do something.

Also his supple and breathtaking style fascinates the reader's attention with developing power. The other method of his writing includes the

characteristics such as (1) insertion (2) statement (3) expansion (4) conclusion in order. Finally, the lyricism in his poem cannot be ignored. These characteristics is the one which can be distinguished from other poets. Even if his poem is the poem which deals mainly with narrative, considering that it is a branch of lyricism, his poems can be recognized as the explanatory, lyrical poem, not as the abstract or connotative poem.

Key words : Yun Bok, FU-poem, Writing, Lyricism, Aesthetics of Narrative Poems, Honam Study